

2021년도 문화재위원회

제9차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21. 9. 16(목), 14:00 ~ 17:3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 출석위원 : 정명섭, 박경식, 이강민, 이경미, 이상종(성공),
이찬희, 전봉희, 정정남, 최성은, 최장순
(이상 10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1	산청 내원사 삼층석탑 지정명칭 변경	공개
2	강릉향교 대성전 주변 교동 주상복합 신축(재심의)	공개
3	강릉향교 대성전 주변 포남동 주상복합 신축	공개
4	춘천 근화동 당간지주 주변 춘천-속초 철도건설(2차)	공개
5	영주 영주동 석조여래입상 주변 보행육교 설치	공개
6	안성 봉업사지 오층석탑 주변 사무소 신축	공개
7	이천 장암리 마애보살반가상 주변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신축(2차)	공개
8	제천 장락동 칠층모전석탑 주변 일반음식점 및 단독주택 신축	공개
9	안성 석남사 영산전 주변 산신각 건립(변경허가)	공개
10	진천 연곡리 석비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개
11	양평 용문사 정지국사탑 및 비 주변 묘사채 건립공사(3차)	공개
12	김천 방초정 주변 허용기준 제정(안)	공개

【검토사항】

13	경주 분황사 당간지주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	공개
14	경주 사천왕사지 당간지주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	공개
15	공주 반죽동 당간지주 보호구역 추가 지정 검토	공개

【보고사항】

16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처리결과 보고 - 영천 승렬당 주변 골목시장 길 활성화 사업	공개
----	---	----

- 제주 불탑사 오층석탑 주변 추락 위험지구 울타리 설치공사
- 경주 효현동 삼층석탑 주변 단독주택 신축
- 성주향교 대성전 및 명륜당 주변 회전교차로 설치
- 문경 봉암사 삼층석탑 주변 회양산 위험구간 데크 설치
- 영천 거조사 영산전 주변 노후 단독주택 철거 후 신축(변경허가)
- 화성 용주사 대응보전 주변 호성전 복원사업(변경허가, 재심의)
- 경주 삼랑사지 당간지주 주변 영마을삼거리 교통신호기 개선공사
- 함안 대산리 석조삼존상 주변 금천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 밀양 표충사 삼층석탑 주변 수선당 철거 후 건립
- 화천 계성리 석등 주변 표지석 설치
- 영천 승렬당 주변정비공사
- 해남 명량대첩비 주변 단독주택 신축
- 청도 석빙고 주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증축
- 제천 장락동 칠층모전석탑 주변 주유소 세차동 증축
- 안동 석빙고 주변 안동문화관광단지 생태순환로 조성사업
- 홍천 희망리 당간지주 주변 홍천강 친수공간 조성
- 서울 인조별서 유기비 주변 단독주택 철거
- 광주 지산동 오층석탑 주변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변경허가)
- 광주 지산동 오층석탑 주변 도로개설공사(지산IC~조선대)
- 화성 용주사 대응보전 주변 동식물관련시설(작물재배사) 설치
- 구례 연곡사 동 승탑 주변 동암 요사채 개축 및 주변정비
- 제주향교 대성전 주변 단독주택 신축
- 칠곡 송림사 오층전탑 주변 농막 설치(2차)
- 청도 석빙고 주변 서상마을쉼터 조성
- 대구 동화사 대응전 주변 부도군 보존처리 및 주변정비
- 칠곡 기성리 삼층석탑 주변 근린생활시설 건립
-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 주변 개인 작품활동
- 태안 동문리 마애삼존불입상 주변 개인 작품활동
- 천안 봉선홍경사 갈기비 주변 농막 설치

【심의사항】

안건번호 건축 2021-09-001

1. 산청 내원사 삼층석탑 지정명칭 변경

가. 제안사항

「산청 내원사 삼층석탑」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명칭 변경 신청을 다음과 같이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시굴조사 시(2020.10~11월) 출토된 기와와 사찰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와의 조합을 통해 현재 ‘내원사’가 ‘덕산사’ 사지임을 확인한 점, 현행 지정명칭에 쓰인 ‘내원사’가 1959년 ‘덕산사’ 사지에 사찰을 창건하면서 붙여진 사찰명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지정명칭을 산청 덕산사 삼층석탑(山淸 德山寺 三層石塔)으로 변경하고자 함.
- 동 사항은 2021년 건축문화재분과 제7차 회의(2021.07.15.)에서 원안가결된 사항으로, 예고기간(2021.07.26.~2021.08.24.) 동안 별도의견 없었음.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경상남도지사
- (2) 대상문화재 : 산청 내원사 삼층석탑
 - 소 재 지 : 경남 산청군 삼장면 대하내원로 256(대포리)
 - 지 정 일 : 1992. 01. 15.
- (3) 신청내용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명칭 변경

당초 명칭	변경 신청 명칭
산청 내원사 삼층석탑 (山淸 內院寺 三層石塔)	산청 덕산사 삼층석탑 (山淸 德山寺 三層石塔)

라. 검토의견(세부의견 붙임 검토의견서 참고)

- 문화재위원 ○○○ : 명칭 변경 타당함
- 문화재전문위원 ○○○ : 명칭 변경 타당함
- ○○대학교 ○○○ : 명칭 변경 타당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원안가결 9명

(붙임)검토의견서

의견서

□ 자문개요

- 자문대상 : 보물 「산청 내원사 삼층석탑」
- 자문내용 : 보물 지정명칭 변경신청
 - (지정명칭)산청 내원사 삼층석탑 → (변경신청명칭) 산청 덕산사 삼층석탑

□ 검토의견

산청 내원사는 1959년 원경스님에 의해 옛 사찰 터에 창건된 사찰이다. 경내에 있는 삼층석탑은 탑신과 지붕의 구성 및 수법으로 보아 통일신라시대 후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어 1992년 1월 15일 대한민국의 보물 제1113호로 지정되면서 「산청 내원사 삼층석탑」으로 명명되었다.

산청 내원사의 자리가 옛 덕산사 터라는 설은 주변 지역이 ‘덕산’이라는 지명으로 불려왔고 통일신라시대 삼층석탑이 자리하기 때문에 주지의 사실로 인정되어 왔지만 확정적인 증거가 제시되지는 않았다. 그런데 최근 매장문화재 발굴조사(2020.10.26.~2020.11.6.)에서 덕산사의 존재가 입증되면서 새로운 계기를 맞았다.

발굴조사에서는 현재 대웅전 아래 옛 사찰의 기단부가 잔존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명나라 연호명 기와편 2점이 발굴되어 조선시대의 중건공사를 증명했다. 특히 소장된 명문기와편을 조합하여 “成化二十一年德山寺造瓦”라는 문구를 복원한 결과, 정확한 사찰의 명칭인 ‘덕산사’와 1485년의 중건 사업을 확정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해당 사찰에 소장된 연화문 수막새가 통일신라시대 후기양식을 보여주는 점, 새로 발굴된 명문기와에 “萬曆四十年”이 기록되어 1612년의 중건사업을 대표하는 점, 그리고 1853년으로 추정되는 계축(癸丑)년의 조선후기 명문 암막새가 확인된 점 등으로 미루어 덕산사가 조선시대 후기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되었던 사찰임을 확인했다.

이처럼 덕산사의 실체가 입증됨으로써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은 2021년 3월 12일 사찰명을 내원사에서 덕산사로 변경 처리했다. 그러므로 경내의 삼층석탑은 원래 덕산사에 속하는 유물이라는 점과 더 이상 내원사라는 사찰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산청 덕산사 삼층석탑」으로 문화재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2021. 7. 5.
문화재위원 ○○○ (서명)

의견서

□ 자문개요

- 자문대상 : 보물 「산청 내원사 삼층석탑」
- 자문내용 : 보물 지정명칭 변경신청
 - (지정명칭)산청 내원사 삼층석탑 → (변경신청명칭) 산청 덕산사 삼층석탑

□ 검토의견

산청 내원사 삼층석탑이 위치한 산청 덕산사는 본래 신라 말기에 무염국사(無染國師)가 창건하여 덕산사(德山寺)라 하였고 임진왜란으로 폐허가 되었다. 이후 1959년 중건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내원암자를 본 따 내원사로 고쳐 부르다 2020년 11월 실시한 내원사 대웅전 위치고증을 위한 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된 명문기와와 내원사 소장품 등에서 현재 내원사가 덕산사 옛 사지에 창건된 사찰임을 확인하였다. 이를 근거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으로부터 덕산사로 사찰명이 변경처리되어 문화재명 역시 2021년 3월 덕산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산청 내원사 삼층석탑은 현재 대웅전 서쪽에 자리하고 있으며 석탑의 위치는 대체로 현재 자리로 확인되고 있다. 석탑은 2단의 기단 위에 옥개석과 탑신석을 3층으로 쌓아 탑신부를 구성한 통일신라시대탑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2020년 10월부터 11월까지 시굴조사를 시행한 결과, 트렌치 내에서 현재 대웅전 기단 석 아래에 통일신라시대로 추정되는 ‘덕산사’와 관련된 기단부가 잔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특히 명나라 연호명 기와편 2점을 수습하여 덕산사의 사적(史蹟)을 밝히는 고고자료를 확보하였다. 또한 내원사 소장품 기와에서도 통일신라시대 늦은 시기로 추정되는 연화문수막새 3점과 명문와편이 확인되는 등 덕산사 사역시기와 내원사 삼층석탑이 유사한 시기에 조성되었음을 추론케 하는 여러 증거들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각종 기록과 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구와 명문, 내원사 삼층석탑의 조성시기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현 산청 내원사 삼층석탑은 본래부터 덕산사 경내에 위치한 석탑으로 판단되며, 특히 내원사라는 사명(寺名)이 1959년부터 갑자기 사용된 점과 현재 덕산사로 변경된 것을 감안하면 ‘산청 내원사 삼층석탑’의 문화재명을 ‘산청 덕산사 삼층석탑’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021. 06. 16. 문화재전문위원 ○○○

의 건 서

□ 자문개요

- 자문대상 : 보물 「산청 내원사 삼층석탑」
- 자문내용 : 보물 지정명칭 변경신청
 - (지정명칭)산청 내원사 삼층석탑 → (변경신청명칭) 산청 덕산사 삼층석탑

□ 검토의견

산청 내원사 삼층석탑은 현 대응전의 서쪽에 자리 잡고 있다. 이 삼층석탑은 기단부, 탑신부, 상륜부로 구성된 삼층석탑으로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기단부는 이중기단으로 지대석, 하층기단 면석 및 갑석, 상층기단 면석 및 갑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하층기단 면석은 4매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면과 배면은 긴 장대석으로 하고, 좌우측면은 짧은 장대석으로 결구시켜 놓았다. 하부에 수평의 하대괴임이 조출되어 있고, 각각의 모서리에는 우주(隅柱)와 가운데 탕주(撐柱)가 모각되어 있다. 갑석은 2매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사진 낙수면과 호형의 2단 하층기단 받침이 조출되어 있다. 상층기단은 면석과 갑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면석은 4매의 장방형 판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면과 배면에는 긴 장방형 면석으로 모서리에는 우주(隅柱)와 가운데 탕주(撐柱)가 모각되어 있다. 짧은 정방형 면석은 좌우측면에 긴 장방형 면석 안쪽으로 결합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주가 나타난다. 따라서 가운데만 탕주(撐柱)가 모각되어 있다. 갑석은 4개의 판석으로 결합되어 있다. 그 위에는 재질에서 약간 차이 있는 2단의 탑신받침이 덧붙여 있다.

탑신부는 3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층마다 탑신석과 옥개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1층 탑신석은 통석의 정방형으로 각각의 모서리에는 우주(隅柱)가 모각되어 있으며, 1층 옥개석의 하부는 4단 옥개받침이 조출되어 있고, 낙수면은 상·하단선이 평행을 이루다가 전각 부분에서 하단선은 약간의 반전이 나타난다. 2층 탑신석은 1층 탑신석과 같이 통석의 정방형으로 각각의 모서리에는 우주(隅柱)가 모각되어 있으며, 2층 옥개석의 하부는 4단 옥개받침이 조출되어 있고, 낙수면은 상·하단선이 평행을 이루다가 전각 부분에서 하단선은 약간의 반전이 나타난다. 3층 탑신석은 1·2층 탑신석과 같이 통석의 정방형으로 각각의 모서리에는 우주(隅柱)가 모각되어 있으며, 3층 옥개석의 하부는 4단 옥개받침이 조출되어 있고, 낙수면은 상·하단선이 평행을 이루다가 전각 부분에서 하단선은 약간의 반전이 나타난다. 상륜부는 거의 다 소실되어 종형의 보주 정도만 남아 있다.

이상과 같이 삼층석탑에 대한 형식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통일신라의 일반양식을 따르고 있고, 주변 지역의 통일신라 삼층석탑과도 어느 정도 유사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재로 인정받아 보물 제1113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현 문화재명인 '산청 내원사 삼층석탑'에서 '산청 덕산사 삼층석탑'으로의 명칭변경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첫째, 당초 내원사(內院寺)는 1959년에 흥원경스님에 의하여 이 삼층석탑을 기반으로 폐사지 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2교구 본사인 해인사의 말사로 2021년 3월 26일자로 ‘내원사(內院寺)’에서 ‘덕산사(德山寺)’로 공식 명칭이 바뀌었다. 명칭이 바뀐 것은 2020년 10월 대응전의 위치를 고증하기 위한 시굴 조사에서 덕산사(德山寺)라고 적힌 명문기와가 출토되면서이다. 덕산사(德山寺)는 신라 무열왕 4년(657년) 원효대사가 ‘덕산사(德山寺)’의 사찰명으로 창건하였다고 전해져 왔으며, 조선중기인 숙종대 전후로 멸실되어 폐사지로 방치되어 온 것으로 나



조선지도(18세기) 진주목 지도상의 덕산지명
출처:서울대학교 규장각

타나고 있다.¹⁾ 그러나 이 사찰이 있는 삼장면, 시천면 등의 지역명이 ‘덕산(德山)’이라는 별칭으로 오랜 세월 동안 이 지역에서 사용되어 왔다. 즉 ‘덕산(德山)’이라는 지명은 덕산사(德山寺)에서 유래한 것으로 조선지도(18세기) 진주목 지도상²⁾에서 보면, 절의 아랫마을을 일컫는 덕산동(德山洞)과 덕산(德山) 등이 표기되어 있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따라서 사찰명이 바뀐 것과 같이 이 문화재의 명칭을 ‘산청 덕산사 삼층석탑’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명칭변경은 타당하다.

둘째, 이 삼층석탑의 형식은 2층 기단과 면석에 탕주와 우주가 조각되어 있고, 4단의 옥개석 받침 등이 조각되어 있다. 그런데 통일신라계 일반형 석탑은 8세기 중엽에서 9세기 후반으로 넘어 오면서 옥개석의 받침이 5단이었던 것이 4~3단으로 줄어들거나, 옥개석 정상면의 탑신 괴임도 2단에서 1단으로 작아지고 각형에서 호형으로 변하였으며, 전체적인 규모도 거대하였던 것이 중형, 소형 탑으로 바뀌는 변형을 보이는 특징을 보이는데, 이 삼층석탑에서도 이와 같은 9세기 후반의 특징적 변화를 감지되고 있다. 따라서 이 삼층석탑은 신라시대에 창건된 덕산사(德山寺)에서 축조된 통일신라 석탑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명칭변경은 타당하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보면, 금번 ‘산청 내원사 삼층석탑’을 ‘산청 덕산사 삼층석탑’으로 문화재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21. 6. 28

○○대학 교수 ○○○ (서명)

1) 1722년 쓰여진 <백우수필>에서 승려 명안(明安, 1645-1710)은 지리산 덕산사 성각(性覺)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언급과 함께, 1719년에 쓰여진 <유두류일록>에서 불장암 골짜기를 출발해 2리쯤 가니 덕산사가 있었다. 절터와 계담 암석이 불 만했다라는 내용으로 보아 이 당시 덕산사는 폐사지였음을 알 수 있다.

2) 조선지도는 보물 제1587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조선시대 전국 군현지도책으로 1750년에서 1768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덕산사는 현재 산청군 삼장면 내원리가 소재지 이나, 조선시대에는 진주목에 속해 있었다.

2. 강릉향교 대성전 주변 교동 주상복합 신축(재심의)

가. 제안사항

강원 강릉시 소재 보물 「강릉향교 대성전」 주변에 교동 주상복합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교동 주상복합을 신축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5구역 “10층 이상 건물 개별심의”에 해당됨.
- ※ '21년 문화재위원회 제8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21.08.19.)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강릉향교 대성전
 - 소재지 : 강원 강릉시 명륜로 29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강원 강릉시 교동 156-35 일원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250m
 - 사업내용 : 강릉 (구)고속버스터미널 부지 주상복합 신축
 - 사업면적 : 9,308.16㎡
 - 건축면적 : 6,821.48㎡

- 연 면 적 : 95,210.22m²(지상 65,620.28m² / 지하 29,589.94m²)
- 건축규모 : 지하 4층, 지상 27층(옥탑포함 최고높이 86.7m)
- 건축용도 : 공동주택 395세대, 근린생활시설 94점포

라. 현지조사의견(2021.09.02. / 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신청부지는 향교 진입부에서 보이는 위치로 부지 주변은 도시화되었고 대부분 4~5층 건물이나 인근에는 약 60m 높이의 건물이 기허가된 사항이 있음.
- 신청건물의 높이가 높고 규모가 커서 향교 진입부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과 신청부지 주변 도시가 낙후되어 개발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경관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부결 8명, 조건부가결 1명

3. 강릉향교 대성전 주변 포남동 주상복합 신축

가. 제안사항

강원 강릉시 소재 보물 「강릉향교 대성전」 주변에 포남동 주상복합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포남동 주상복합을 신축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5구역 “10층 이상 건물 개별심의”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 : 강릉향교 대성전
 - 소재지 : 강원 강릉시 명륜로 29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강원 강릉시 포남동 852, 852-1, 852-3, 852-5, 852-19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470m
 - 사업내용 : 강릉 포남동 주상복합 신축
 - 사업면적 : 2,364.80㎡
 - 건축면적 : 1,876.21㎡
 - 연 면 적 : 32,198.44㎡(지상 24,921.52㎡ / 지하 7,276.92㎡)
 - 건축규모 : 지하 4층, 지상 24층(옥탑포함 최고높이 75.45m)
 - 건축용도 : 공동주택 175세대, 오피스텔 22호, 근린생활시설 등

라.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보류 8명, 조건부가결 1명

4. 춘천 근화동 당간지주 주변 춘천-속초 철도건설(2차)

가. 제안사항

강원 춘천시 소재 보물 「춘천 근화동 당간지주」 주변에 춘천-속초 철도를 건설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춘천-속초 철도를 건설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 ※ '21년 문화재위원회 제8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21.08.19.) : 부결
 - 작업·운영 중 진동 영향, 지하수위 변화 영향, 작업방법(시점부 변경 등) 상세 자료 보완·제시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 : 춘천 근화동 당간지주
 - 소재지 : 강원 춘천시 근화동 793-1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강원 춘천시 근화동 793-1 일원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에서 수평26.5m, 수직8.6m, 직선35.6m
 - 사업내용 : 춘천-속초 철도건설 제1공구(L=7,399m)
 -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전체424.5m 해당

- 제1공구(L=7,399m)
 - 정거장개량 270m, 토공 949m
 - 터널 6,180m(셴드TBM 1,450m, NATM 4,310m, 개착터널 420m)
- 진동영향평가(예측진동속도)
 - 공사중 : 작업구 0.008cm/s, 대형운반차량 0.0005~0.0007cm/s, 반복선 0.011cm/s
 - 운영중 : 본선 0.0274cm/s, 반복선 0.1095cm/s
 - * 문화재 허용진동치 : 0.2cm/sec(국토교통부 터널표준시방서 등)
- 지하수위 및 침하 영향검토
 - 발진구 : 지하수위 0.7m 저하, 발생침하량 1.47mm
 - E-챔퍼 : 지하수위 0.2m 저하, 발생침하량 0.59mm
- 지축방음벽(L=375m, H=3m) 설치 등

라. 의결사항

- 부결
 - 반복선에 대한 대안 제시
 - 철도 건설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증 필요.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부결 10명

5. 영주 영주동 석조여래입상 주변 보행육교 설치

가. 제안사항

경북 영주시 소재 보물 「영주 영주동 석조여래입상」 주변에 보행육교를 설치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 보행육교 설치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공통사항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영주 영주동 석조여래입상
 - 소재지 : 경북 영주시 중앙로7(가흥동)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영주시 가흥동 10번지 일원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주탑까지 241m
 - 사업내용 : 경사형 1주탑 보도 사장교 설치
 - 보도 사장교 : 연장 180m, 폭 2.5m / 주탑 최고높이 36.5m
 - 기타 시설물 : 교통약자 연결로 및 엘리베이터, 야간경관 조명, 데크로드 등

라. 현지조사의견(2021.08.27. / 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신청 육교는 영주동 석불에서 제방둑과 가로수로 인해 보이지 않고, 당해 문화재가 이전된 점을 고려할 때,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이전된 비지정 문화재이나 제민루와 삼판서고택을 고려하여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경관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부결 8명, 보류 1명

6. 안성 봉업사지 오층석탑 주변 사무소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 안성시 소재 보물 「안성 봉업사지 오층석탑」 주변 사무소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 사무소 신축이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심의”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안성 봉업사지 오층석탑
 - 소재지 : 경기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148-5
 - 지정일 : 1966. 02. 28.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기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67-6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140m
 - 사업내용 : 사무소 신축
 - 면적 : 85㎡
 - 구조 : 경량철골조
 - 높이 : 6.5m

라.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부결 9명

7. 이천 장암리 마애보살반가상 주변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신축(2차)

가. 제안사항

경기 이천시 소재 보물 「이천 장암리 마애보살반가상」 주변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 공장 신축을 건립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심의”에 해당됨.
- ※ ‘21년 문화재위원회 제6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21.06.17.) : 부결
 - 역사문화경관 저해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이천 장암리 마애보살반가상
 - 소재지 : 경기 이천시 마장면 장암리 183-1
 - 지정일 : 1989. 04. 10.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기 이천시 마장면 장암리 157번지 외 1필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에서 111m
 - 사업내용 : 공장 신축(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구분	부결('21.6차)	금회
대지면적	1,649m ²	1,960m ²

구 분	부결('21.6차)	금회
건축면적	576m ²	151.19m ²
연 면 적	576m ² (지상1층)	683.19m ² (지하1층 532m ²) (지상1층 151.19m ²)
최고높이	7.65m	5.38m
건물구조	일반철골구조	지하1층 (콘크리트조) 지상1층 (일반철골조)

※ 건물색상 : 무채색(회색)으로 빛 반사되지 않는 재료

※ 차폐식재 : 문화재가 보이는 방향으로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차폐계획

라.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경관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부결 9명

8. 제천 장락동 칠층모전석탑 주변 일반음식점 및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충북 제천시 소재 보물 「제천 장락동 칠층모전석탑」 주변 일반음식점 및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 일반음식점 및 단독주택 신축이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심의”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제천 장락동 칠층모전석탑
 - 소재지 : 충북 제천시 장락동 65-2
 - 지정일 : 1967. 06. 23.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충북 제천시 장락동 357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70m
 - 사업내용 : 일반음식점 및 단독주택 신축

구분	조건부가결('17.10차)	금회
대지면적	1,330㎡	670㎡
건축면적	74.33㎡	133.7㎡
연면적	117.77㎡ (1층 단독주택 74.33㎡, 2층 단독주택 37.44㎡)	267.4㎡ (1층 일반음식점 133.7㎡, 2층 단독주택 133.7㎡)

구 분	조건부가결('17.10차)	금회
최고높이	7.78m	8.5m
구 조	목구조	철근콘크리트

라.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경관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부결 9명

9. 안성 석남사 영산전 주변 산신각 건립(변경허가)

가. 제안사항

경기 안성시 소재 보물 「안성 석남사 영산전」 주변 산신각 건립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 산신각 건립이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심의”에 해당됨.
- ※ ‘21년 4월 자체회의 검토결과 : 조건부가결
 - 원지형 변경 최소화 위해 석축높이 조정토록 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안성 석남사 영산전
 - 소재지 : 경기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 508
 - 지정일 : 1985. 01. 08.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기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 산32-1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에서 43.3m

○ 사업내용 : 산신각 건립

구 분	조건부가결 (`21.4월)	금 회
문화재 거리	68.2m	43.3m
규모	정면1칸*측면1칸 (3m*3.3m=9.9m ²)	정면1칸*측면1칸 (3.9m*3.3m=15.21m ²)
양식	3량가, 이익공, 맞배지붕, 곁처마	변경없음
높이	5.12m	5.27m
석축	전면석축 (L=11m, H=0.3~1.3m) 배면석축 (L=11m, H=0.3~1.0m)	전면석축 (L=11m, H=0.54~1.14m) 배면석축 (L=13m, H=0.3~1.5m)

라. 의결사항

- 부결
 - 산신각 위치 조정 필요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부결 9명

10. 진천 연곡리 석비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가. 제안사항

충북 진천군 소재 보물 「진천 연곡리 석비」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심의”에 해당됨.
- ※ ‘21년 8월 자체회의 검토결과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진천 연곡리 석비
 - 소재지 : 충북 진천군 진천읍 김유신길 639(연곡리)
 - 지정일 : 1964. 09. 03.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충북 진천군 진천읍 연곡리 503-1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190m
 - 사업내용 : 근린생활시설(커피숍) 신축
 - 대지면적 : 863m²
 - 건축면적 : 122.26m² (1동 지상1층)
 - 최고높이 : 6m
 - 구조 : 철골구조

*** 현지조사의견(2021.08.25. / 문화재전문위원 ○○○)**

- 근린생활시설은 기 허가된 사례가 2건이 있어 규모 등은 영향이 적을 것으로 판단됨
- 근린생활시설의 배치는 주차장에 맞추고 있으나 땅에 따라 배치된다면 사찰 진입부에서 보았을 때 가시면적을 최소화할 것으로 판단됨
- 근린생활시설의 색채는 문화재주변에 해당되므로 무채색 계열에서 지정되어 문화재경관을 관리하여야 함

라. 의결사항

- 부결
 - 건물 배치 조정 필요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부결 9명

11. 양평 용문사 정지국사탑 및 비 주변 묘사채 건립공사(3차)

가. 제안사항

경기 양평군 소재 보물 「양평 용문사 정지국사탑 및 비」 주변 묘사채 건립공사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 묘사채 건립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심의”에 해당됨.
- ※ ‘20년 문화재위원회 제13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20.12.17.) : 부결
 - 원지형 훼손 과다
- ※ ‘21년 문화재위원회 제3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21.03.18.) : 부결
 - 시·발굴조사 선행 후 재심의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 : 양평 용문사 정지국사탑 및 비
 - 소재지 : 경기 양평군 용문면 신정리 산99-6
 - 지정일 : 1971. 07. 07.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기 양평군 용문면 신정리 산99-6 외 1필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탑 보호구역에서 62m, 비 보호구역에서 30m
 - 사업비 : 700,000천원(자부담)

○ 사업내용 : 요사채 5동 건립

구 분	부결('21.3차)	금회
대지면적	3,592m ²	변경없음
건축면적	1동 요사채 99m ² 2동 요사채 77.76m ²	1동 요사채 61.2m ² 2동 요사채 47.88m ² 3동 요사채 47.88m ² 4동 요사채 29.1m ² 5동 요사채 21.78m ²
건축양식	1동(정면5칸, 측면3칸, 팔작, 겹처마, 익공식) 2동(정면3칸, 측면3칸, 맞배, 겹처마)	1동(정면3칸, 측면3칸, 팔작, 겹처마, 익공식) 2동(정면3칸, 측면3칸, 맞배, 익공식) 3동(정면3칸, 측면3칸, 맞배, 익공식) 4동(정면2칸, 측면3칸, 맞배, 익공식) 5동(정면3칸, 측면1칸, 맞배)
최고높이	1동 6.82m, 2동 7.13m	1동 6.74m, 2동 6.14m 3동 6.14m, 4동 6.03m 5동 5.38m
석축쌓기	135m(H=0.5~3.2m)	135m(H=0.5~2.0m)
토 수 로	120m(300*300)	변경없음

※ 양평 용문사 쌍봉암지 정비계획 구역 발굴조사 결과

○ 조사기간

(시굴조사/ 3,070m²) 2021. 4. 5. ~ 2021. 4. 16.

(발굴조사/ 1,200m²) 2021. 6. 9. ~ 2021. 7. 23.

○ 조사범위 :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신점리 산99-6, 616번지 일원

○ 조사결과

- 쌍봉암지 사역확인, 층급식 산지가람 구조와 특성 확인
- 승탑의 대좌, 옥개석이 위치한 3단의 부도전지와 쌍봉암지 관련 건물지 6동, 축대 5기, 담장지, 석렬 등이 확인
- 발굴조사 결과 확인된 유구는 용문사 및 부도전지와 관련하여 조선시대 중기 이후 건립된 암자터로 추정됨
- 유구의 보존정비를 위해서 발굴조사결과 확인된 유구를 중심으로 축대와 건물지에 대한 정비복원계획이 마련되어야 함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입지조건에 맞게 건물 배치 조정
 - 유구 보존에 걱정한 복토 조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조건부가결 9명

12. 김천 방초정 주변 허용기준 제정(안)

가. 제안사항

경북 김천시 소재 보물 「김천 방초정」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제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보물 「김천 방초정」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기간(2021.05.06.~2021.05.26.(20일)) 동안 별도 의견이 없었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김천시장
- (2) 대상문화재 : 김천 방초정
 - 소재지 : 경북 김천시 구성면 상원리 83
 - 지정일 : 2019. 12. 30.
- (3) 신청내용 : 「김천 방초정」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제정안(붙임 참조)
- (4) 주요내용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에 따른 허용기준 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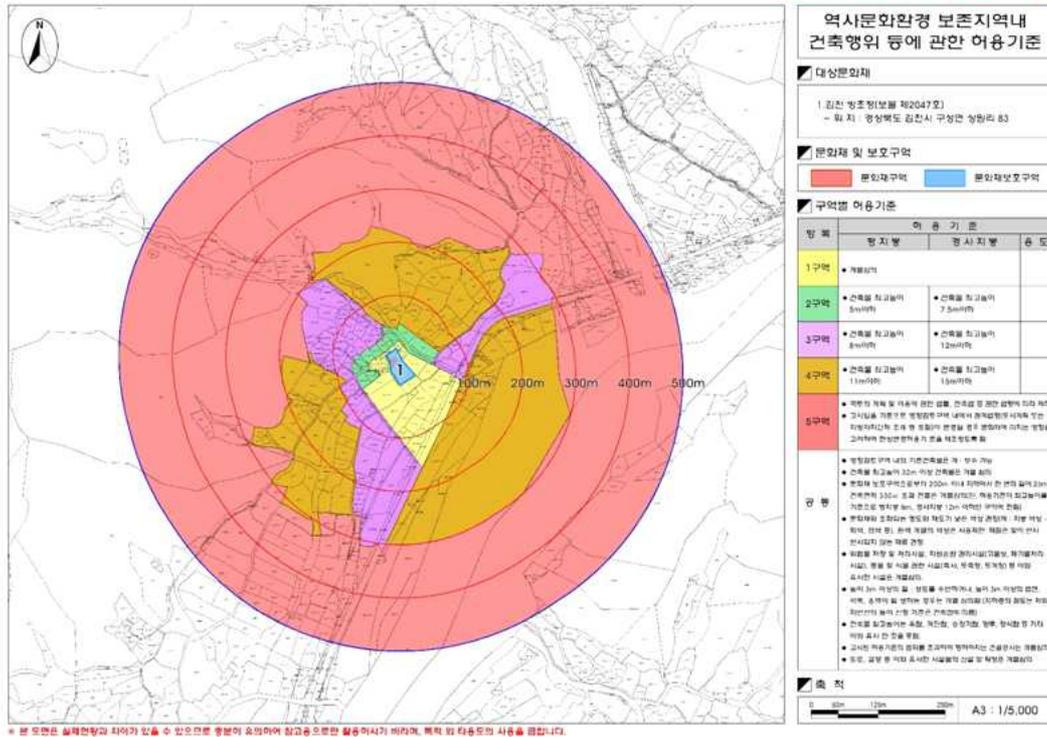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원안가결 9명

붙임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1부.

▣ 보물 “김천 방초정”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도면 】



【 범례 표 】

구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 10:3 이상)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5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리시설(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검토사항】

안건번호 건축 2021-09-013

13. 경주 분황사 당간지주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경북 경주시 소재 「경주 분황사 당간지주」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북 경주시 소재 시도유형문화재 「경주구황동당간지주」를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경상북도지사
- (2) 대상문화재 : 경상북도 시도유형문화재 제192호 「경주구황동당간지주」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구황동 315-2번지
 - 지정일 : 1985. 10. 15.
- (3) 신청내용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 명 칭 : 경주 분황사 당간지주(慶州 芬皇寺 幢竿支柱)
 - 소유자(관리자) : 경주시(경주시)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구황동 315-2번지
 - 조성연대 : 통일신라시대
 - 수 량 : 1기
 - 지정면적 : 3m²
 - 양 식 : 석조 당간지주

라. 현지조사의견(2020.10.19.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마. 지정조사보고서 : 붙임참조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원안가결 9명, 제척 1명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0.10.19.	대상문화재	경주 분황사 당간지주	
조사자	성 명	○○○	전공 분야	한국건축사
	소 속	○○대학교	직위(직책)	연구석좌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 현재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92호로 지정되어 있음.
	문화재 명칭	현재는 경주 구황동당간지주이나 경주 분황사당간지주로 신청함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경북도 경주시 구황동 315-2. 분황사 앞 세부내용 <붙임1> 입지 현황 및 역사 문화환경.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붙임2> 분황사와 당간지주의 연혁 및 유래. 참조 <붙임3> 분황사 당간지주의 특징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붙임4>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이 당간지주는 支柱와 杆臺石 등 당간지주를 구성하는 부재의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3간공 관통형식은 한국 석조 당간지주의 시원양식으로 평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주 사이에 龜趺 간대석을 갖춘 예는 국내에서 유일하며 신라 조각사적으로도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따라서 국가문화재로서 가치를 지닌다 하겠다.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1 년 2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지정현황 :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92호
- 명 칭 : 경주 구황동 당간지주(慶州九黃洞幢竿支柱), 흔히 분황사 당간지주라고 불리고 있어서 지정신청서에는 분황사 당간지주라고 함
- 소 유 자 : 경주시
- 소 재 지 : 경상북도 경주시 구황동 315-2
- 지 정 일 : 1985. 10. 15
- 수 량 : 1기
- 규 격 : 약 3.7m
- 재 질 : 석조 당간
- 형 식 : 三杆孔, 龜趺 간대석 형식
- 조성연대 : 신라 혹은 통일신라

<붙임1> 입지현황 및 역사 문화환경

경주 구황동 당간지주(慶州 九黃洞幢竿支柱)는 황룡사지와 분황사지 일대의 발굴조사 결과 분황사 소속의 당간지주로 추정되는 것으로, 흔히 분황사 당간지주라고 불리고 있어서 지정신청서에는 분황사 당간지주라고 하였다. 1985년에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 192호로 지정된 이 당간지주는 분황사 모전석탑으로부터 서남쪽으로 약 100m 가량 떨어져 있는데, 그 이격된 거리가 다소 멀어서 소속 사찰을 명확히 하지 못하고 “경주 구황동 당간지주”라는 명칭으로 지정되었다.

분황사 당간지주가 위치한 분황사 주변의 입지환경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신라왕경의 중심유적인 황룡사지, 동궁과 월지, 월성, 전랑지 등 다수의 유적지가 반경 1km 이내에 분포되어 있다.

분황사 주변 입지 환경은 동쪽으로는 넓게 펼쳐진 농경지와 보문동 남촌마을을 지나 명활산이 자리하고 있다. 서쪽으로는 구황동 사리마을을 지나 경주 시가지가 펼쳐지며, 서천 건너편으로 선도산이 위치하고 있다. 남쪽의 분황사 정문 앞에는 소로가 동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남쪽에는 분황사의 유구로 추정되는 통일신라시대 당간지주가 세워져 있다. 또한, 분황사 동남쪽 약 30m 지점에는 구황동 지석묘가 있다. 분황사에서 황룡사지까지는 비포장 도로가 두 유적을 연결해 주고 있다.

특히 황룡사지 남쪽으로는 경주 동궁과 월지, 월성 등을 자리하고 있으며 이들을 지나면 남산이 보인다. 북쪽으로는 동에서 서로 북천이 흐르고, 북으로 더 가면 동천동 아파트단지와 농경지를 지나 백률사와 사면석불이 있는 소금강산이 위치하고 있다.

경주 구황동 당간지주(혹은 분황사 당간지주)는 행정구역상으로 경주시 구황동

315-2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소속 사찰인 분황사는 황룡사지와 더불어 경주 四岳이 교차하는 신라왕경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다. 이 위치는 북천(關川)의 남안에 접하여 입지하고 있다.

<붙임2> 분황사와 구황동 당간지주의 연혁 및 유래

- 분황사와 구황동 당간지주의 연혁

분황사는 선덕왕 3년(634)에 창건된 이후 여러 차례의 변화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재 경역의 전체 면적은 7,940㎡(약 2,400평)로 전성기에 비해 축소된 상황이나,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로는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국보 제30호), 분황사 약사여래입상(경북 문화재자료 제319호)을 안치한 보광전, 분황사 석정(경북 문화재자료 제9호), 분황사 和諍國師碑趺(경북 유형문화재 제97호) 등이 있다.

한편 구황동 당간지주(경북 유형문화재 제192호)는 현재 분황사 주차장 남쪽 농경지 내에 있으며 분황사 사역은 남쪽에 담장이 경계를 이루고 있어 전성기의 면적에 비하면 현재의 경역은 많이 축소된 모습을 느낄 수 있다.

당간지주에 명문을 새기는 것은 희귀한 예로 현재로써는 보물 제4호인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가 유일하다. 경주 구황동 당간지주(분황사 당간지주) 역시 여타 당간지주들과 같이 창건과 관련된 연혁이나 유래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분황사의 소속 사찰로 추정되는 까닭에 분황사의 연혁을 통하여 구황동당간지주의 연혁을 추정할 수 밖에 없다.

분황사는 『三國遺事』에 단편적인 기록이 남아 있어 창건과 그 이후 통일신라시대까지의 가람 변천에 관한 정황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다. 분황사 창건 초기에 당나라에서 돌아온 자장율사가 번당을 가지고 와 분황사에서 주석하였다는 내용을 토대로 당간지주가 건립된 시점을 추측해볼 수 있다.

분황사 창건 시기에 대해서는 『三國史記』와 『삼국유사』에서 각각 언급하고 있는데, 창건 시기가 선덕왕 3년(634)으로 일치한다. 특히 분황사에 창건 이후 통일신라 직후까지 고신라의 명승 慈藏(590~658)과 元曉(617~686)가 차례로 머무르면서 불법을 전파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자장율사가 당에서 귀국할 때 대장경 1부, 번당, 화개를 가지고 오자 분황사에 주석하게 했다는 기록이 전하므로 이 기록에 근거하여 본 당간지주는 분황사 당간지주에 해당하며 우리나라에서 당간지주가 출현하였을 때, 즉 시원적인 모습으로 비정되기도 한다.

그후 8세기 중엽 경덕왕대에는 새로운 역사여래동상을 조성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불사가 있었으며, 12세기에 해당하는 고려 숙종~명종대에는 불탑을 중수하고 원효를 기리는 화쟁국사비를 건립하였다.

15세기 후반에는 이미 불탑이 무너지는 등 사찰의 세가 쇠락하였으며, 16세기 말의 임진왜란으로 인하여 폐사되었다. 그 후 17세기 초에 보광전을 건립하였으나 전성기에 비하여 암자 수준의 소규모 사찰로 전락하였다.

근세에 들어와서는 일제강점기였던 1915년에 불탑을 보수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으며, 이듬해인 1916년에는 보광전을 보수하였다. 이 보광전은 1998년에도 해체수리를 실시하였으며, 이때 확인된 상량문에서 16~17세기 분황사의 성쇠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국내 당간지주 현황

문화재로 지정된 당간 및 당간지주는 총 54개로 국보는 청주용두사지철당간이 유일하며, 보물이 안양 중초사지당간지주를 포함하여 28개이고, 시도문화재가 상주 북룡동 당간지주를 포함하여 25개이다. 이중 현재 당간까지 남아있는 곳으로는 갑사 철당간, 용두사지 철당간, 법주사 철당간, 나주 동문의 석당간, 담양 읍내리 석당간, 칠장사 철당간, 영광 단주리 석당간, 부안 서외리 석당간 등이 있다. 또한 온전한 당간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유물로 공예적 성격으로 만들어진 용두보당(국보 제136호 호암미술관 소장)이 있다.

시대적으로 통일신라시대 때 조성된 것으로 알려진 안양 중초사지당간지주를 포함하여 29개이며, 고려시대 때 조성된 것으로는 청주 용두사지철당간을 포함하여 19개이다. 그밖에 조선시대에 조성된 서외리 당간지주와 시기를 특정 지을 수 없는 당간지주가 5개 있다.

<붙임3> 구황동 당간지주의 특징

분황사는 황룡사, 흥륜사 등과 함께 신라의 삼국통일 이전 왕경 경주에 조성되었던 칠처가람의 하나로 자장, 원효 등 고승들이 주석하였던 왕실원찰의 역할을 담당한 신라시대 대표 사찰이다. 본 당간지주는 황룡사지와 분황사지 일대의 발굴조사 결과, 분황사 소속의 당간지주로 추정되고 있다.

그 이유는 8차에 걸친 분황사와 주변 발굴 조사를 통해 본 당간지주 주변으로 분황사 소속으로 추정되는 남문지 및 담장지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분황사 주변에 당간지주가 자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황룡사 중문과 남문 사이에서는 황룡사 당간지주로

추정되는 양쪽 하단부만 남은 별도의 당간지주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발굴 조사를 통해 드러난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해 보면 구황동 당간지주는 분황사에 소속된 당간지주로 추정되며, 이것은 분황사 가람 배치의 변천을 밝히는데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된다.

당간이란 당을 걸기위한 시설물로 주로 사찰의 입구에 위치하여 사찰의 초입에 자리 하여 가람의 영역을 표시하거나 장엄 상징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사용재료는 목조·석조·철조를 이용하여 제작되었다. 당간과 당간지주는 크게 기단부, 간대부, 지주부, 당간부로 구성되는데, 이러한 기본적인 구성은 지주부의 치석이나 장식수법, 당간의 재료 등에서의 변화를 제외하고, 시대의 흐름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당간과 당간지주는 통일신라시대 때 경주를 중심으로 내구성이 강한 석조 당간지주가 조성되면서 치석수법도 한층 발전한 당간지주가 세워지기 시작하였으며, 사찰의 가람 구성의 필수적인 건조물로 건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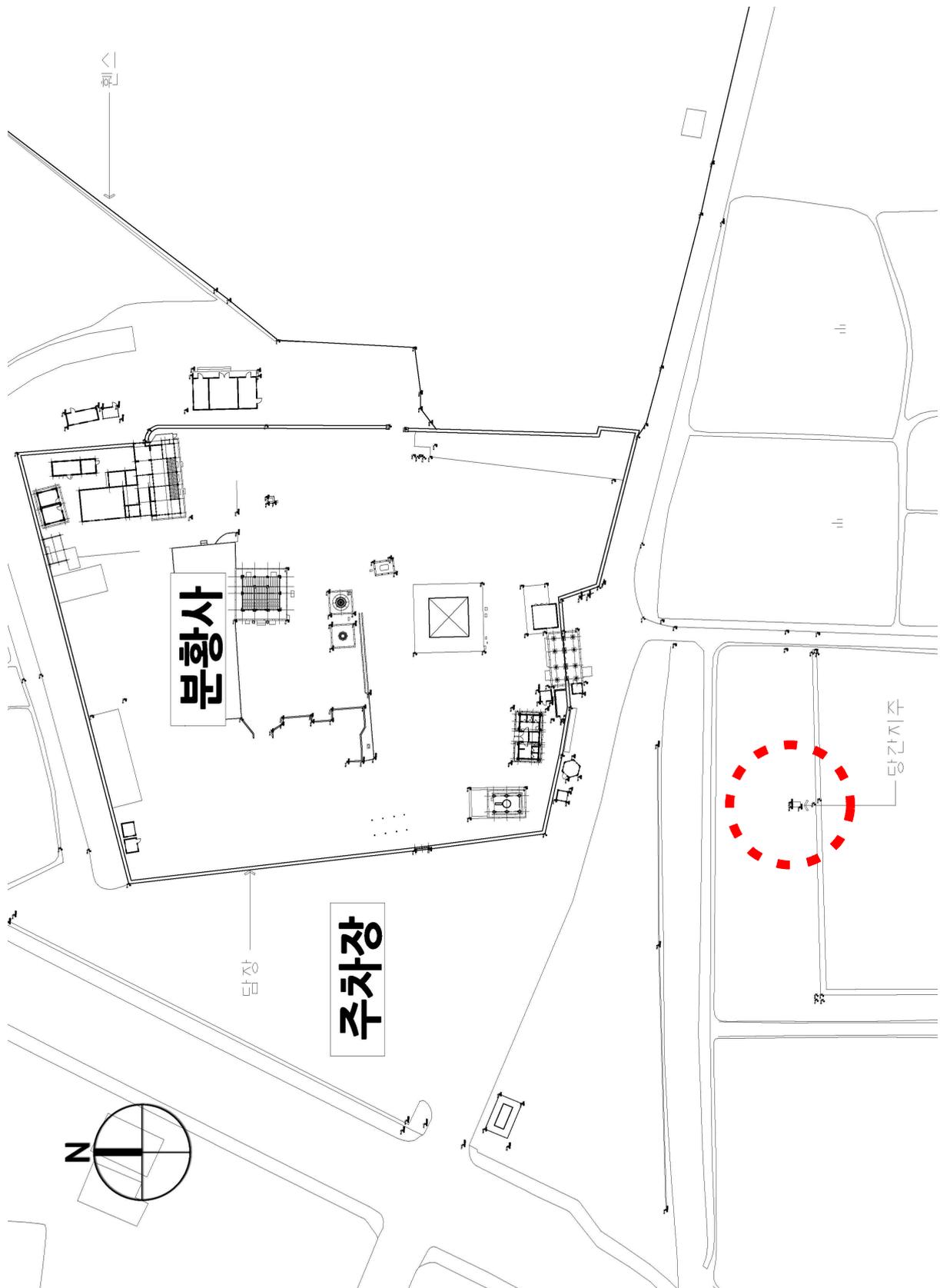
이러한 당간은 불교의 발생지역인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 유래되었는데, 인도와 중국에 비해 한국 사찰에서 정형화된 당간과 당간지주의 건립이 성행한 것은 한국의 고유 신앙인 소도 신앙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³⁾ 소도신앙의 솟대와 당간과 당간지주가 그 형태면에서 유사하고, 신성한 영역의 입구에 세우는 위치성, 또 벽사적인 성격 등에서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3) 위의 내용은 국가문화재지정신청서에 재인용하였음.

신중원, 1987, 당간조영의 문화사적 배경, 강원사학 3집, 강원대 사학회, p.25

홍윤식, 1988, 마한소도신앙영역에서의 백제불교의 수용, 마한·백제문인 11집, 마한·백제문화연구소, p.16

엄기표, 1997, 통일신라시대의 당간과 당간지주연구, 문화사학 6·7호, 한국문화사학회, p.303.



경주 분황사 및 당간지주 주변 배치도(국가문화재 지정 신청서에 의함)

또한 이 당간지주는 당간과 당번 등은 없지만 支柱와 杆臺石 등 당간지주를 구성하는 석부재의 보존·관리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특히 지주에 3개의 구멍이 관통되는 3간공 관통형 양식은 우리나라 석조 당간지주의 시원양식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지주 사이에 거북이 모양인 龜趺 간대석으로 되어 있는 예는 국내에서 유일하며, 나름 치석이나 조각수법이 우수하여 신라 조각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작품이다.

- 구황동(분황사) 당간지주의 형식4)과 특징5)

현재 분황사 남쪽 농경지에 자리한 이 당간지주는 여느 당간지주가 그렇듯이 2개의 지주가 한 짝을 이룬다. 2개의 지주가 남북으로 72cm가량 떨어져 서로 마주 보고 배치되어 있으며, 높이는 약 3.7m이다. 간대석의 폭이 약 61cm이므로 원래 지주의 사이는 더 좁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남쪽에서 본 경주 구황동 당간지주와 3개의 간공

지주의 맨 위로부터 44cm 아래 지점에 上杆孔이 시작되어 각각 109cm, 108cm 간격을 두고 中杆孔과 下杆孔이 관통되어 있다. 이 간공 사이로 당간을 결속하는 수평의 부재가 자리하여 횡력방향의 안정을 얻고자 하였을 것이다. 원형 간공의 지름은 약 15cm이며, 다른 간공 관통형 당간지주와 같이 양쪽에서 파들어 간 흔적이 중간에 남아있다. 본 당간지주에 있어 관통된 간공 내면은 다른 어떤 간공

관통형 당간지주의 간공보다 잘 다듬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주의 최상단부는 4분원 형태인 弧形이며, 지주 외측면 양쪽 모서리는 모죽임으로 되어 있다.

당간지주 중에서 지주의 최상단에 간구를 마련하지 않고 3군데에 원형이나 방형의 간공을 관통시킨 형태를 3간공 당간지주라 하는데, 신라 지역에 분포하는 3간공 당간지주는 총 5기로 확인된다. 그들은 구황동 당간지주, 황룡사지 당간지주, 사천왕사지 당간지주, 보문사지 당간지주, 산청 단속사지 당간지주이다. 이들 5기의 3간공 당간지주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확인된 82기의 당간지주를 놓고 볼 때 약 6%밖에 되지 않는 수이며 국내 전체 당간지주 중에서 매우 이례적인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4) 박홍국, 2006, 신라 삼간공 관통형 당간지주에 대한 고찰, 신라문화 Vol.28, 부분 발췌

5) 경주시, 국가문화재 등이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 52쪽



귀부 간대석 정면

당간지주의 맨 아래 부분에 해당하는 杆臺石은 폭이 약 61cm 정도로 다른 당간지주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수법을 하고 있다. 즉, 춘천 근화동 당간지주나 봉산동 당간지주에서 보듯이 연화좌대가 격조 있는 것인데 이 구황동 당간지주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거북이 모양을 하고 있는 점으로 아주 독특한 모습이다. 거북이 몸 부분인 龜身, 거북이 등을 하고 있는 龜甲, 머리인 龜頭 등이 나타나는 龜趺형상으로 만든 것이다. 또한 귀부의

상부에는 동서쪽 면에 연화문이 장식된 사각형의 座臺를 높게 마련하여 당간을 받치도록 하였다. 그리고 좌대 서쪽 편으로는 사각형 낙수홈을 만들었는데, 당간이 놓인 부분에서 물이 고인 다음 낙수홈을 따라 지면으로 빠지도록 의도하였다.

<붙임4>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 당간지주의 명칭

이 당간지주는 분황사석탑 남쪽으로 약 100m 가량, 분황사 담장 경계에서 약 70m 가량 떨어져 있다. 그 이격된 거리가 멀어서 소속 사찰을 명확히 정하지 못하고 1985년에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92호로 지정된 “경주 구황동 당간지주”라는 명칭으로 지정되었다. 원래 여느 당간지주나 마찬가지로 사역의 초입에 자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후 1990년부터 20여년간에 걸친 8차의 분황사 및 주변 일대의 전면 발굴조사를 통하여 분황사 남쪽에서 남문지로 추정되는 터와 담장의 석렬이 확인되었다. 이로 인하여 당간지주가 분황사 사역의 외곽에 자리한 분황사에 소속된 당간지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황룡사지 발굴 조사 과정에서 황룡사지 당간지주가 확인되었으므로⁶⁾, 구황동 당간지주가 분황사 소속의 분황사 당간지주로 추정하는데 근거를 뒷받침하고 있다.

-. 조성시기

《삼국유사》에서 자장이 당나라에서 귀국할 때 대장경과 幡幢, 花蓋를 가지고 오자, 분황사에서 주석하게 했다는 기록과 三杆孔이 관통되어 있고 외관의 모습 등 당간지주

6) 경주시에서 제출한 국가문화재지정신청서에 의함.

- 국립문화재연구소, 2010, 황룡사연구총서6-황룡사 복원 기반 연구, p.333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4, 황룡사지 신라 고식 수막새 분류일람-신라기와 조사연구 자료집Ⅱ p.238

양식을 보았을 때, 이 당간지주는 우리나라 초기형식인 7세기 중반의 당간지주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되고 있다.

- 미술사적 가치

우선 이 당간지주는 우선 분황사 사역의 초입, 남서측에 자리하고 있어 분황사 가람 배치의 형식과 변화양상을 밝히는데 자료가 되고 있다.

또한 支柱와 杆臺石 등 당간지주를 구성하는 석부재의 보존상태가 양호한 편이며, 지주에 3개의 구멍이 관통되는 3간공 관통형으로 이 형식은 우리나라 석조 당간지주의 시원 양식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지주 사이에 龜趺 杆臺石을 갖춘 예는 국내에서 이 당간지주에서만 나타나는 유일한 예로 신라 조각사적으로도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 문화재적 가치

이 당간지주는 지주 자체에 대한 장식은 소박한 형태이지만, 전체적인 모습은 장중한 느낌으로 미륵사지 당간지주나 부석사의 것처럼 평면이 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외관이 늘씬하고 완만한 체감을 이루어 조형성이 뛰어나다.

또한 보존 상태와 조형성이 매우 뛰어나고, 조각사적 가치와 희소성이 돋보인다. 건립 시기 또한 현존하는 최고의 당간지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느 당간지주에 비하여 문화재적 의미가 부족함이 없어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그 가치를 잘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0.10.19	대상문화재	경주 분황사 당간지주	
조사자	성 명	○ ○ ○	전공 분야	한국미술사 (석조미술)
	소 속	○○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경주 분황사 당간지주(慶州 芬皇寺 幢竿支柱)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p>당간지주 일대는 신라 시대 수도가 있었던 곳으로 황룡사, 분황사 등 여러 사찰과 함께 많은 공공시설물이 들어서 있던 중심지역으로 파악된다. 황룡사와 분황사는 여러 사료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사찰로 왕실과 밀접한 관련 속에서 창건되었으며, 불교 신앙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였다. 이 중에 분황사는 황룡사와 인접하여 있던 사찰로 신라 선덕여왕 때 창건되었으며, 고려와 조선 시대에도 중수를 거듭하면서 법등을 지속하였다.</p> <p>이 당간지주는 원위치로 추정되는데, 황룡사를 중심 하여 북쪽, 분황사를 중심 하여 남쪽에 세워져 있다. 이 당간지주는 분황사의 가람 배치와 주변 사찰들의 현황, 사찰 가람 상에서 당간지주의 배치 등을 고려할 때 원래부터 분황사에서 활용하기 위하여 건립한 것으로 보인다.</p>		
주요 지정 사항	연혁·유래 및 특징	별첨 【붙임 1】 참고		
	검토	<p>분황사는 창건된 이후 통일신라 시대 들어와 사찰이 크게 번창하면서 가람을 확장해 나갈 때, 경내로 들어가는 입구에 이 당간지주를 건립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당간지주는 조영 기법과 양식이 통일신라 시대 당간지주의 전형적인 양식을 취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치석 수법 등으로 보아 통일신라 시대 건립된 당간지주 중에서도 비교적 이른 시기에 세워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통일신라 시대 우수한 석공예 의하여 시공 설계되어 정연한 외관과 조영 기법을 보이고 있어 돋보이며, 다른 당간지주에서는 볼 수 없는 귀부형 간대석을 유일하게 마련한 점은 특징적이다. 그리고 이미 국가 지정된 다른 당간지주와 비교해 보아도 손색이 없는 당간지주이다. 또한 보존 상태도 양호하여 당간지주의 역사와 양식사를 파악하는데 귀중한 자료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뛰어나고 완전성과 진정성도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p>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p>이 당간지주는 통일신라 시대 사찰 가람에서의 당과 당간의 역할, 사찰 가람과 당간지주의 배치 등을 파악하는데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주변 사찰의 현황, 분황사의 가람 등을 고려할 때 원래부터 분황사에서 활용하기 위하여 건립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동안 경주 구황동 당간지주로 불렸다. 따라서 앞으로는 소속 사찰을 명확하게 하고,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문화재 명칭을 ‘경주 분황사 당간지주’로 수정하여 지정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된다.</p> <p>그리고 이 당간지주가 분황사에 소속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분황사 주변의 정화와 정비 현황은 이 당간지주와 분황사가 관련이 없는 것처럼 진행된 측면이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 당간지주가 분황사에 소속된 것임을 고려하여 가람에 대한 정비와 정화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p>
	종합의견	<p>이 당간지주는 건립 시기와 조영 기법, 양식 등에 따른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높고, 완전성과 진정성도 뛰어나 국가 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 당간지주는 여러 정황으로 보아 분황사에서 활용하기 위하여 건립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주 분황사 당간지주’로 문화재 명칭을 지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p>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1 년 8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붙임 1】

<연혁·유래 및 특징>

- 지정현황 : 현재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92호
- 명 칭 : 경주 분황사 당간지주(慶州 芬皇寺 幢竿支柱)
- 소 유 자 : 경주시
- 소 재 지 : 경상북도 경주시 구황동 315-2
- 수 량 : 1基
- 규 격 : 전체 높이 360cm
- 재 질 : 화강암
- 조성연대 : 통일신라시대
- 현 상 :

1. 경주 분황사의 연혁과 당간지주

경주 芬皇寺는 경주시 구황동에 있는 사찰로 『三國遺事』의 기록에 의하면 七處伽藍 중의 하나로 634년(선덕여왕 3년) 용궁의 북쪽에 창건되었다고 한다.⁷⁾ 당시 분황사는 황룡사와 함께 왕실 차원에서 건립되었으며, 선덕여왕을 비롯한 여러 국왕과도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신라 선덕여왕은 643년 당나라에서 귀국한 慈藏(590~658년)을 분황사에 머물게 하였으며, 645년에는 자장의 요청으로 皇龍寺塔이 처음 만들기 시작했다. 이후에는 元曉(617~686년)가 분황사에 머물며 『華嚴經疏』 등을 찬술하였으며, 그의 아들 弘儒侯 薛聰이 원효의 碎骨塑像을 조성하여 봉안하기도 하였다.⁸⁾ 이 소상은 고려시대 一然(1206~1289.07.08)이 생존했을 때까지만 해도 뒤를 돌아보는 모습으로 분황사에 남아있었다고 한다. 이처럼 경주 분황사는 원효가 주석한 사찰 중에 가장 인연이 깊은 사찰이어서 원효를 분황사의 陳那菩薩 現身이라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755년에는 本彼部の 強古乃未가 구리 30만 6,700근을 들여 약사여래불을 조성했고,⁹⁾ 率居가 그린 관음보살상은 神畫로 널리 회자 될 만큼 명성이 높았던 고찰이었다. 분황사는 창건된 이후 황룡사와 함께 중요 사찰로서 중앙 정부나 왕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신라 불교 신앙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이러한 분황사의 위상에 부침은 있었지만, 그 중요성은 고려 시대까지 지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 시대 들어와서도 분황사 모전석탑이 여러 번에 걸쳐 수리되었음을 알 수 있는 유물이 발견되었으며, 원효를 추증하고 그것을 기념한 和諍國師碑가 1190년

7) 『三國遺事』 卷3, 興法 3, 阿道基羅.

8) 『三國遺事』 卷4, 義解 5, 元曉不羈.

9) 『三國遺事』 卷3, 塔像 4, 皇龍寺鐘 芬皇寺藥師 奉德寺鐘. 藥師如來像은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으로 전한다.

(명종 20년)에 분황사에 세워지기도 했다. 그런데 몽골의 침략으로 바로 옆에 있었던 황룡사가 소실되면서 황룡사는 사찰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지만, 분황사는 조선 초기 金時習(1435~1493년)과 徐居正(1420~1488년) 등이 방문하고 남긴 詩 등으로 보아 다소 위축되기는 했지만 큰 피해 없이 법등을 잇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발굴 조사에서도 조선 전기에 중수되었음을 알 수 있는 명문기와들이 출토되었다. 그런데 임진왜란 때 왜병들에 의하여 분황사 모전 석탑의 반이 허물어졌다고 한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 몇 번의 중수가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번성기의 가람 규모를 회복하지는 못하였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사역의 규모도 상당히 축소되면서 오늘날과 같은 모습을 취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분황사는 여러 기록과 발굴 조사에서 확인된 유적과 유물들로 보아 신라 시대 창건되어 조선 후기까지 꾸준하게 법등을 이었던 사찰이었음을 알 수 있다.¹⁰⁾

지금도 분황사에는 模塼石塔, 각종 石佛,¹¹⁾ 幢竿支柱, 팔각우물, 碑座 등을 비롯하여 건물에 활용된 많은 석재와 기와편들이 남아있어 고찰이었음을 알 수 있다.¹²⁾ 이 중에 분황사 입구 남쪽에 세워져 있는 당간지주는 신라시대 분황사 가람의 규모와 배치, 고대 사찰 가람 상에서 당간지주의 배치, 주변 사찰들과의 배치와 방위, 황룡사지는 입구 쪽에 파손되었지만 황룡사의 것으로 보이는 별도의 당간지주가 유존하고 있는 점, 현재의 분황사 가람의 규모가 상당히 축소된 상황이라는 점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할 때 분황사에서 활용하기 위하여 건립했을 것으로 보인다. 즉, 분황사 소속의 당간지주가 확립시된다고 할 수 있다.

10) 1990년 이후 계속된 발굴 조사에서 창건 당시의 가람배치를 알 수 있는 유구를 비롯하여 각종 건물지, 담장, 배수로 등이 확인되어 전성기의 가람이 상당한 규모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발굴 조사에서는 신라를 비롯하여 조선 시대까지의 다양한 기와가 출토되고 있어 조선 시대까지 법등이 지속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文化財管理局, 『芬皇寺石塔 實測調査報告書』, 1992.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芬皇寺 發掘調査報告書 I』, 2005.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芬皇寺 출토유물』, 2006.

유홍식, 「芬皇寺 伽藍配置와 變遷에 관한 考察」, 『芬皇寺 출토유물』,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2006.

박은진, 「芬皇寺 출토 수막새 編年研究」, 『芬皇寺 출토유물』,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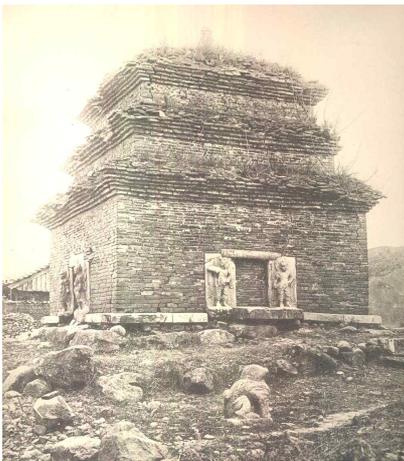
엄기표, 「芬皇寺 模塼石塔의 推移와 樣式」, 『元曉學研究』 제18집, 元曉學研究院, 2013.

11) 국립경주박물관에는 1965년 분황사의 북쪽으로 있는 우물에서 출토된 석불들이 소장되어 있다. 이 석불들은 목이 잘린 채 폐기된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이는 조선 시대 역불승유 정책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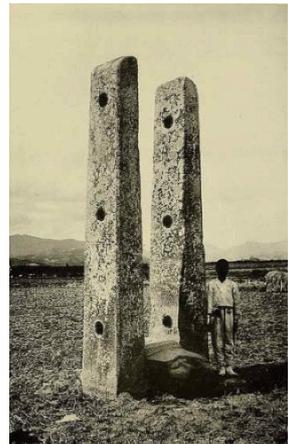
12) 1915년 일본인들에 의한 분황사 모전석탑 수리 공사 시 석조로 제작된 사리장엄 시설이 출토되어 국립경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그리고 1990년 이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연차적으로 발굴 조사를 실시하였다. 발굴 조사에서 3급당의 가람배치와 그 변천 과정이 확인되었으며, 다양한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특히 건물지를 비롯하여 다양한 문양의 기와가 출토되었으며, 조선시대까지 여러 번에 걸쳐 중건과 중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신라시대에는 분황사가 대찰의 면모를 갖춘 가람이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주 분황사와 당간지주



수리 직전 분황사 모전석탑
전경(1915년경)



경주 분황사 당간지주 전경(일제강점기)

2. 경주 분황사 당간지주의 양식과 특징

이 당간지주는 일제강점기에 조사 당시 촬영된 여러 사진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때와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큰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¹³⁾ 현재 두 지주 사이에 세웠던 당간은 남아있지 않지만, 조영 기법과 양식이 동일한 두 지주와 당간을 받쳤던 귀부형 간대석이 원위치로 보이는 곳에 비교적 온전하게 남아있다. 당간지주는 하단부가 깊게 매몰되어 있어 기단부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으나, 현존하는 간대석과 당간지주 하단부의 치석 수법으로 보아 별도의 가구식 기단을 시설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즉, 당간지주의 하부를 깊게 매몰하여 세웠던 것으로 추정된다.¹⁴⁾



경주 분황사 당간지주 전경(2013년)



경주 분황사 당간지주(2020.10)

먼저 당간을 견고하게 받치기 위한 간대석은 다른 당간지주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13) 關野貞, 『朝鮮の建築と藝術』, 東京 岩波書店刊行, 1941, p.586.

14) 임기표, 『統一新羅時代の 幢竿과 幢竿支柱 研究』, 『文化史學』 第6·7合號, 韓國文化史學會, 1997.

기법의 귀부형 간대석을 마련하였다. 간대석은 신라 시대의 다른 귀부처럼 정연하고 생동감 있는 조각 기법은 아니지만, 간략하게나마 귀두와 발 등을 표현하여 귀부형으로 마련했다. 귀부형 간대석 상면에는 사각형 좌대를 마련하여 앞뒤로 연화문을 장식하였는데, 그 표현 기법이 신라시대의 연화문과 친연성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좌대 한가운데에는 작은 사각형을 오목하게 시공하였으며, 한쪽 방향으로 물이 빠져나가도록 좁게 낙수홈이 시설되어 있어, 상당히 정교한 치석 수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당간 하부의 평면 형태는 사각형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귀부형 간대석에서 귀두의 방향은 당간지주의 방향과 함께 사찰로의 진입 방향을 추정하는데 유용하다.

신라와 고려시대의 당간과 당간지주에서 다양한 유형의 간대석이 마련되는데, 경주 분황사 당간지주처럼 귀부형 간대석을 구비한 경우는 유일하게 확인되고 있다. 간대석의 조각 기법이 다소 형식화되어 있고, 사실감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용도와 기능을 고려한 조각으로 보이며, 전체적인 치석 수법이나 조각 기법으로 보아 당간지주와 동일한 시기에 함께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귀부형 간대석)



(귀부형 간대석 상면)

경주 분황사 당간지주(2020년)

그리고 두 당간지주는 동일한 조영 기법과 양식, 치석 수법을 보이고 있다. 당간지주는 귀부형 간대석의 좌우측에 ‘ㄷ’자형으로 홈을 파서, 지주 하단부의 일정 부분이 귀부형 간대석에 삽입 결구되어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하였다. 당간지주의 전체적인 형태는 평면 사각 석주형인데, 상부로 올라가면서 조금씩 좁아지도록 치석하였다. 당간지주의 바깥면은 지면에서 148cm 정도 되는 높이까지 1단 높게 하였으며, 바깥면의 좌우 측 모서리를 4cm 정도의 너비로 모죽임 하였다. 또한 당간지주의 정상부는 안쪽 면에서 바깥면으로 나가면서 부드럽게 호형을 그리도록 치석하여 다소나마 장식적인 기교를 보이고 있다. 당간은 당간지주의 안쪽면에서 바깥면으로 관통하는 원형 간공(지름

15cm)을 상중하 3곳에 마련하여 간을 끼워 고정하도록 시설하였다. 그리고 안쪽 면 꼭 대기에 마련되는 간구는 시공하지 않았다. 이처럼 당간지주의 상중하 3곳에 간공을 마련하여 당간을 고정하는 방법, 당간지주의 바깥면이나 앞뒷면을 1단 높게 하거나 낮게 하는 치석 수법은 통일신라시대 당간지주에서 많이 적용된 기법이였다.

경주 분황사 당간지주는 전체적으로 당간지주의 표면을 고르게 다듬어 마무리한 것으로 보아 상당히 정성스럽게 치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경주 지역에 건립된 다른 당간지주와 마찬가지로 정연하면서도 안정된 외관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당간지주의 하부를 1단 높게 치석하고, 외곽 모서리를 모죽임하여 장식적인 기교를 적용한 점이나 관통된 원형의 간공을 마련하여 당간을 고정했던 기법 등을 비롯하여 전체적인 지주부 형태와 외관 등이 경주 망덕사지 당간지주, 경주 보문사지 당간지주, 경주 남간사지 당간지주 등과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이들 당간지주와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원형으로 관통된 중간부 간공)



(바깥면 치석 수법)

경주 분황사 당간지주(2020년)

3. 경주 분황사 당간지주의 가치와 의견

경주 분황사 당간지주는 통일신라시대의 다른 당간지주들처럼 전체적으로 정연하고 깔끔한 치석 수법과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당간지주의 표면을 고르게 다듬어 마무리하는 등 바깥면을 기교있게 치석한 것으로 보아 상당히 우수한 석공에 의하여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경주 분황사 당간지주는 경주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요 사찰의 당간지주와 유사한 조영 기법과 양식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과 비교하였을 때 비교적 이른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관통된 원형의 간공을 상중하 3곳에 마련하였으며, 통일신라시대 당간지주 중에서 유일하게 귀부형 간대석을 마련하여 당과 당간에 대한 상징이나 의미를 더하였다. 이처럼 경주 분황사 당

간지주는 전체적인 조영 기법과 양식 등을 통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 등을 검토하고, 기지정된 국가 지정 당간지주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가 지정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현재 이 당간지주는 경주 구황동 당간지주로도 불리고 있다. 그런데 이 당간지주는 분황사 경내를 중심으로 하여 일정한 거리를 두고 남쪽에 세워져 있으며, 여러 정황으로 보아 원위치로 판단된다. 현재는 분황사 경내와 당간지주 사이의 공간이 도로, 주차장, 경작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전의 자료를 보면 민가와 경작지로 되어 있어 당간지주가 분황사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현재 이 당간지주 주변에는 분황사 외에 당간지주와 관련되었을 만한 다른 사찰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사찰 가람상에서 당간과 당간지주는 사찰로 진입하는 공간에 배치되었다. 한편 분황사 남쪽에 상당한 거리를 두고 황룡사를 비롯한 다른 사찰들이 소재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이 당간지주는 원래부터 분황사에서 활용하기 위하여 건립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간지주의 소속 사찰을 명확하게 하고, 향후 또 다른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경주 분황사 당간지주’로 문화재 명칭을 정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사료된다.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0.10.19.	대상문화재	경주 분황사 당간지주	
조사자	성 명	○○○	전공 분야	미술사
	소 속	○○○○박물관	직위(직책)	관장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경주 분황사 당간지주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1 년 2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1. 개요

- 명 칭 : 경주 분황사 당간지주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구황동 315-2
- 소유자 : 경주시
- 관리자 : 경주시
- 수 량 : 1기
- 재 질 : 석재(화강암)
- 조사일시 : 2020. 10. 19.

2. 현상 및 특징

1) 당간지주의 형식

현재 분황사의 남서쪽에서 위치해 있으며 당간지주는 남북으로 마주보게 세워져 있다. 지주는 상단 외측면 양쪽에 모죽임이 있을 뿐 특별한 문양은 새겨 놓지 않았다. 지주는 위로부터 3곳에 걸쳐 원형의 간공을 마련하여 소위 3간공 형식이다. 간공은 모두 지주를 관통하게 마련하였으며 간공의 지름은 약 15cm 내외이다.

지주의 하단에는 당간을 받쳤던 것으로 보이는 간대석이 남아 있는데, 형태가 일반적인 방형이 아닌 귀부형이다. 귀부는 옆구리를 ‘ㄷ’자형으로 파서 양 지주에 하단에 끼워 고정시킨 형식이다. 귀부는 동쪽으로 얼굴을 내었고 목을 깊이 집어 넣은 모습을 취하고 있다. 얼굴은 눈, 코, 입 등을 모두 정밀하게 조각하여 무거운 당간을 이고 있는 긴장감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서쪽 꼬리부분도 조각하였고 상단에는 중앙에 경계선을 돌을 새김하고 좌우측으로 귀갑을 표현했다. 현재는 귀부 정면과 배면의 향좌측 부분이 파손되어 있다. 간대석 상면에는 방형으로 당간받침을 마련하였는데(50×61cm) 외부로 노출되는 동서면에는 연화문을 새겨 놓았다.

2) 당간지주의 예술성

본 당간지주는 귀부 간대석의 정면과 배면의 일부 파손이 있으나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기본형태를 충실히 유지하고 있다. 특히 현재까지 남아 있는 자료를 분석해 봤을 때 애초부터 지금까지 원래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전해지는 당간지주의 양식을 살펴보면 시대의 변천에 따라 간주석에 문양대가 추가되기도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간공의 형태와 숫자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간공을 지주에 직접 뚫어 표현하는 것에서 상단에 간구를 마련하는 것으로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관통형 3간공 형식의 당간지주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방형공으로 변화한다든지 보문사지 당간지주와 같이 간공의 숫자가 2개로 축소되는 양

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관통형의 원형 3간공 형식은 당간지주의 시기적 흐름에 있어 초기에 해당하는 시원형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간대석을 귀부형으로 제작한 예는 본 당간지주가 유일한 예에 속한다. 연구자에 따라 귀부형 간대석이 8세기말에서 9세기초에 후보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유일한 희귀성은 변함이 없다.

따라서 분황사 당간지주는 시대적 희귀성과 함께 당간지주로는 거의 유일하게 조각품으로의 예술성도 띠고 있어 한국 석조미술사 연구에 있어 표준작이 될 수 있다.

3) 조사자 의견

본 당간지주는 양식적으로 볼 때 한국 당간지주에서 시원형에 속하는 작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간대석을 귀부로 조각해 배치하는 유일한 작품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국 석조미술사에서 갖는 다음의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당간지주는 지주만 남은 경우가 많고 그나마 파손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원래의 장소에서 이견되어 진정성을 상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본 당간지주는 『조선고적도보』의 사진을 비교해보면 현재의 상태와 거의 변화가 없다. 즉 원래의 형태, 원래의 장소에서 전승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따라서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작품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

둘째, 작품의 시원성을 들 수 있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당간지주는 지주의 간공 형태에 따라 다양한 형식이 존재하고 있으며 3단의 원형간공에서 방형간공으로 또 상단에 간구를 파 넣는 형식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같은 당간지주의 시대별 변천사항에서 본 당간지주는 가장 오랜 형식인 원형 3간공에 속한다. 즉 한국 당간지주에서 가장 오래된 발생기의 작품이며 동시에 최고(最古)의 작품일 가능성이 높다.

셋째, 작품의 희소성이 있다. 현재 전승되는 당간지주는 대부분이 지주만 잔존하는 경우가 많고 일부 간대가 남아 있다. 간구의 형태는 대부분이 방형이며 당간이 놓이는 부분에 원형의 연화문을 조각하는 예를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당간지주는 귀부를 조각해 넣어 예술성을 강조하고 있다. 귀부가 가장 많이 쓰인 석비와 비교해 보면 전혀 다른 조형으로 본 작품만의 희소성을 발견할 수 있다. 물론 지주가 처음 만들어 졌던 시기와 동시대에 동일 조형인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지만 그럼에도 조형적 유일성에는 변화가 없다.

이 같은 본 당간지주의 독창성과 유일성, 한국 당간지주 조형사에서 갖는 시원성 등을 감안 할 때 본 작품이 갖는 문화재적 가치는 뛰어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당간지주는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하기에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다.** 최근 여러차례 발굴 결과에 따라 분황사에 속한 당간지주가 확실하다고 단정되는 바 1985년 경상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될 당시 지정명칭을 ‘구황동 당간지주’에서

‘분황사 당간지주’로 개선할 여지가 있다. 또한 지정이후 다음과 같이 주변에 대한 정비 작업을 권고한다.

- ① 본 당간지주가 위치한 곳은 집중호우시 상습적 침수지역으로 당간지주 하부 구조를 굴착하여 노출시키고 지주의 외측 공간에 배수구를 확보하여 침수에 대비 할 것.
- ② 현재 당간지주에 밀착하여 제작된 보호난간을 철거하고 관람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보호난간과 문화재 설명판은 배수구 외측으로 높지 않게 설치할 것.

14. 경주 사천왕사지 당간지주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경북 경주시 소재 「경주 사천왕사지 당간지주」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북 경주시 소재 「경주 사천왕사지 당간지주」를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경상북도지사
- (2) 대상문화재 : 「경주 사천왕사지 당간지주」
 - 소재지 : 경상북도 경주시 배반동 949-2
 - 지정일 : 비지정
- (3) 신청내용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 명칭 : 경주 사천왕사지 당간지주(慶州 四天王寺址 幢竿支柱)
 - 소유자(관리자) : 경주시(경주시)
 - 소재지 : 경상북도 경주시 배반동 949-2
 - 조성연대 : 통일신라시대
 - 수량 : 1기
 - 지정면적 : 3㎡
 - 양식 : 석조 당간지주

라. 현지조사의견(2020.10.19.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없음.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없음.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없음.

마. 지정조사보고서 : 불임참조

바. 의결사항

- 부결
 -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지정 권고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부결 10명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0.10.19.	대상문화재	경주 사천왕사지 당간지주	
조사자	성 명	○ ○ ○	전공 분야	한국건축사
	소 속	○○대학교	직위(직책)	연구석좌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 현재 비지정
	문화재 명칭	경주 사천왕사지 당간지주(慶州 四天王寺址 幢竿支柱)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경상북도 경주시 배반동 949-2 세부내용 <붙임1> 입지 현황 및 역사 문화환경.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붙임2> 사천왕사지 당간지주의 건립연대와 장소성. 참조 <붙임3> 사천왕사지 당간지주의 형식과 특징.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붙임4>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검토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본 당간지주는 우리나라 석조 당간지주의 시원양식인 三杆孔 貫通形 당간지주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세 개의 간공은 方形과 圓形이 혼재되어 있다. 꾸밈이 적어 소박하며, 하단에 단을 만들어 시각적으로 안정감을 준다. 정상부는 둥글게 하였고 외측면 모서리에 모죽임을 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나라 당간지주 중에서 가장 초기적인 양식이다. 다만, 원래의 위치가 아니고 지주가 절단되어 접합시켰으며, 기단이나 간대석 등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현 상태에서는 국가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고 생각된다.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1 년 2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경주 사천왕사지 당간지주(慶州 四天王寺址 幢竿支柱)
- 소 유 자 : 경주시
- 소 재 지 : 경상북도 경주시 배반동 949-2
- 수 량 : 1기
- 규 격 : 높이 약 2,320mm, 평면 약 340×500mm
- 재 질 : 석재 화강석 당간지주
- 형 식 : 三杆孔 형식, 현재의 모습은 간대석과 기단이 없음
- 조성연대 : 통일신라시대, 7세기후반

<붙임1> 입지현황 및 역사 문화환경

주지하는 바와 같이 경주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형 도시이다. 동쪽에 명활산, 서쪽에는 선도산과 송화산, 남쪽에 남산, 북쪽에는 소금강산과 도동산이 위치한다. 이 도시 가운데 남북으로 약간 기울어진 모습으로 사적 제163호인 낭산이 자리한다. 이 낭산과 남산은 농경지를 사이에 두고 있고 차도와 철도로 구획된다.

경주의 하천은 울산광역시 두서면 백운산에서 발원한 형산강과 그 지류, 그리고 형산강 이외의 하천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강의 총 길이는 67.2km이며, 유역의 면적은 1,346km²이다. 그 가운데 경주시의 구역을 통과하는 부분은 길이가 6.6km이며, 유역은 147km²이다.

사천왕사지가 소재한 낭산은 경주시 보문동 214-2번지 일원으로 사적 제163호로 지정되어있다. 면적은 826,396m²이며, 누에고치 모양처럼 남북으로 길게 누워 있는 형상을 하고 있는 낮은 구릉에 유적이 산재한다. 3개의 봉우리에 의해 형성된 야산으로 경사는 비교적 완만하며, 초고표고는 해발 113.1m로 낮은 산이다.¹⁵⁾ 이 낭산에만 해도 국보 제37호 황복사지 삼층석탑을 비롯하여 보물 제665호 낭산 마애보살상존좌, 사적 제182호 선덕여왕릉, 사적 제8호 사천왕사지 등의 유적이 분포되어 있다. 당연히 이 사천왕사지 안에 지정신청대상인 사천왕사지 당간지주가 위치한다.

사천왕사지는 낭산의 맨 아래에 위치하며, 사역 내를 관통하는 철로가 있다. 평균 해발고도는 53.5m이다. 사역 남쪽으로 약 2m의 단애부가 형성되었고, 사찰 입구에는 보문동 하강선마을로 향하는 좁은 도로가 있다.

지정신청 대상 당간지주는 사천왕사지 남쪽에 있으며, 당간지주의 바로 앞에는 왕복 4차선 도로가 지나간다. 그 도로 건너 동쪽에 사적 제7호 망덕사지가 위치하고 북쪽에는 사적 제182호 선덕여왕릉이 자리한다.

15) 사천왕사Ⅲ(회랑외곽 발굴조사보고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4

당간지주의 동측에는 목이 잘린 귀부가 2기 있다. 동서쪽의 귀부는 서로 닮았다. 아마 추정에 의하면 이 귀부 위에 사천왕사 사적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원래 이 자리가 낮은 것은 아니었을 텐데 상대적으로 도로가 높아져 귀부는 낮은 곳에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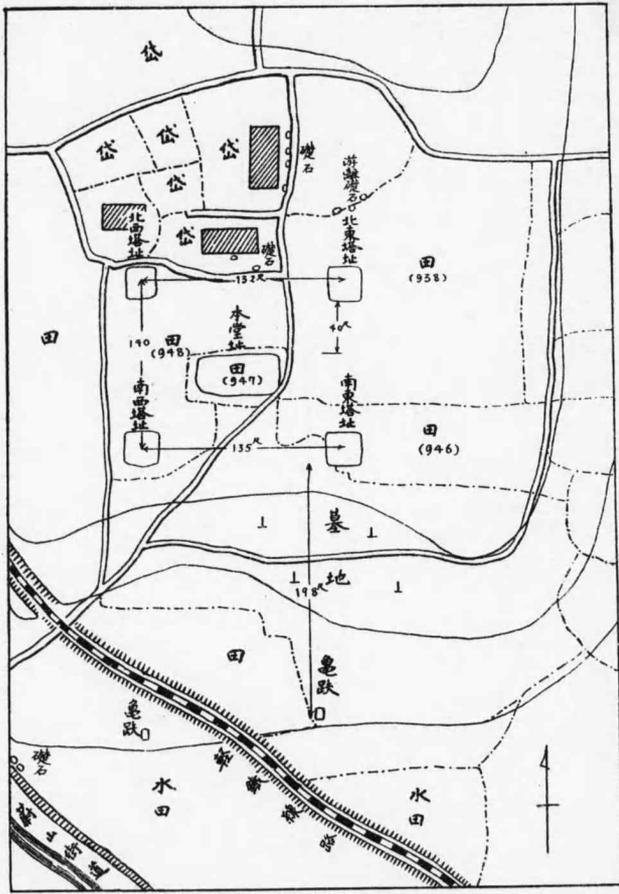


남산 남단 사천왕사지 당간지주(국가문화재 지정신청서의 사진 인용)

<붙임2> 사천왕사지 당간지주의 건립연대와 장소성

1) 사천왕사와 당간지주의 건립연대 추정

우리나라에서 당간지주 자체의 연혁을 자세히 알 수 있는 경우는 희귀하다.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의 경우 서측 지주 외측면에 명문이 있어 그 연혁을 알 수 있을 뿐이다. 현재로서는 이 경우가 유일한 예다. 따라서 사천왕사지 당간지주를 포함한 대부분



慶州四天王寺址附近圖

(縮尺千二百分)

경주 사천왕사지 부근도(古蹟調査報告. 大正11年度 第1冊, 1922)

의 당간지주의 건립연대는 소속 사찰의 창건 연대와 같은 시기라고 비정되고 있다.

사천왕사는 신인종의 시조 명랑법사가 창건한, 密敎의 秘法을 시행한 사찰이다. 이 터는 원래 神遊林이라고 하여 신성시되던 곳이었다. 선덕여왕이 자신이 죽으면 도리천에 묻으라는 유언을 남기면서 이곳을 지목했다고 한다. 이 설화는 낭산을 수미산처럼 여기던 신라인들의 불국토사상의 일면을 보여준다.

또한 사천왕사는 호국의 염원을 담은 호국사찰이며, 文豆婁秘法을 실시한 밀교사찰이다. 또한 사천왕사는 성전¹⁶⁾이 설치된 成典寺院이었으며, 성전사원 중에서 격이 가장 높았다고 보여진다.¹⁷⁾

사천왕사는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 창건된 최초의 사찰이며, 唐과의 전쟁 중 창건되었다. 당

나라 군이 침략해 오자 왕과 여러 신하들이 방어책을 논하였을 때, 각간 김천존이 용궁에서 비법을 전수해왔다는 明朗法師를 추천하였고, 명랑법사는 사천왕사의 창건을 건의하였다고 『삼국유사』의 기록에 나타난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사천왕사지 당간지주는 사천왕사가 건립된 시기와 같은 연대가 아닌가 한다. 즉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기록에 의하면 사천왕사는 문무왕 19년(679년)에 건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일신라시대 대표적인 호국사찰로서

16) 成典은 왕실에 의해 건립된 사원이나 궁성을 관리하고 보수하는 관청을 말한다. 따라서 사천왕사성전은 사천왕사의 관리와 보수를 담당한 관청이라 할 수 있다. <사천왕사 녹유신장벽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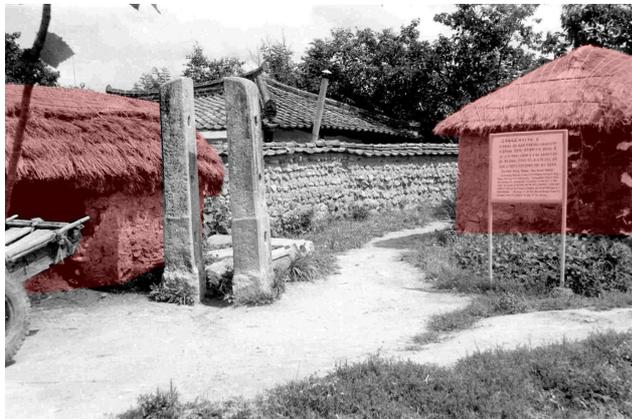
17) 신라 중대에는 사천왕사가 그 이전 황룡사가 수행하던 僧政機構로서의 여러 기능을 대신할 정도의 중요한 사원이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김상현, 「사천왕사의 창건의 의의」, 《신라문화재학술발표회논문집》 17, 1996 ; 국가문화재 지정신청보고서에 의함.

사세가 대단하였고 신라를 대표하는 사찰이었다고 보면 당간지주의 건립연대 역시 679년으로 비정된다. 즉, 통일신라시대인 7세기 후반이라 하겠다.

이처럼 사천왕사는 통일신라시대 때뿐만 아니라, 고려와 조선시대 초까지도 그 명맥이 이어져 밀교의 비법인 문두루비법이 행하여졌다. 따라서 사천왕사는 황룡사와 더불어 신라를 대표하는 사찰이라고 할 수 있겠다.

2) 당간지주의 이전

사천왕사지 당간지주는 현재 중문지 남서쪽에 위치하여 4차선의 넓은 도로를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위치는 문화재로서의 영역성이나 보호가 되지 않고 있으며, 당간지주가 최초로 있었던 원래 위치가 아니다. 1928년 일제강점기 시절, 도로 개설을 위하여 당간지주를 이전하였기 때문에 본래의 위치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1950년대(추정) 당간지주 사진(경상북도문화재)

사천왕사 당간지주의 가장 오래된 사진은 藤島亥治郎가 1929년에 촬영한 것으로 이 사진은 이미 도로 공사가 끝난 후 이건이 완료된 시점의 사진이다. 그의 저서 <朝鮮建築史論>¹⁸⁾에 보면 사천왕사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며, 그 중 당간지주에 대한 내용도 기록되어 있어서 참고가 된다.

“작년(1928년) 이 땅에 세웠으니, 그 위치가 하등 고증적인 것을 가지지 못한다.” 이는 무분별적으로 위치를 이전 시

켰음을 뜻하며, 본래의 위치를 기록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사천왕사 발굴조사보고서에서도 당간지주의 이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현재 위치는 민가에 있던 것을 옮겨 와 세운 것으로 원래 위치는 알 수 없다”고 쓰여 있다.¹⁹⁾

또한 사천왕사지 당간지주가 민가와 함께 찍혀 있는 사진이 있으나, 촬영 연대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 1954년의 항공사진과 대조하여 사진의 촬영 연대를 추정해본 결과 1950년대 내외국가문화재 지정신청보고서에 의함.의 사진으로 보인다.

18) 朝鮮建築史論, 藤島亥治郎, 1930, 경주의 시가배치도를 나름의 토대로 상상해 복원한 '신라왕경복원도'가 실려있다. ; 국가문화재 지정신청보고서에 의함.

19)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2-2014, 사천왕사 발굴조사보고서 I, II, III



第27圖 四天王寺幢竿支柱
藤島撮影(1929.8)

1929년 사천왕사 당간지주 사진 및 기록(조선건축사론, 1930)

此の附近に現在幢竿支柱が立つて居るが(第27圖)是は以前附近の井堰用石となつて居たものを、一昨年此の地に建てたので、其の位置は何等考證的の物を持たない。

第二項 中門址

昭和四年八月、著者實査に當り、前記崖上に半ば土中より露出した礎石を發見した。其の位置より推して是を中門礎石とするに憚らない。此の模様では、慎重に發掘するならば、中門及び四面廻廊の礎石を比較的完全に發見すべき事を期せられると思ふが、現在發掘不可能の爲、止むを得ず是に就いては推論に止め、他日發掘の後補正を期し度い。當礎石の位置は、金堂中心軸南 172.5 尺、金堂中心より南方に軸線を引けば其の差 8 尺である。

<붙임3> 사천왕사지 당간지주의 형식과 특징

1) 사천왕사지 당간지주의 형식

한국에서 당간과 당간지주가 처음 건립될 때인 통일신라 초기에는 기단이 따로 마련되지 않았고 지주를 땅속에 깊게 묻어 세웠다고 한다. 그 후 통일신라 중기에는 당간지주의 건립이 성행함에 따라 당간을 세우는 기술이 발전하고 다른 석조미술의 영향을 받아 전형적인 기단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즉, 통일신라 중기에 건립된 당간지주는 석탑기단의 영향을 받아 제작된 것으로 평면이 장방형으로 되어 있으며 두 지주를 견고하게 고정하기 위한 홈이나 괴임을 기단 위에 마련하였는데 그 괴임은 각형이나 호형의 받침으로 되었다. 또한 면석 부분에 안상을 조각하여 석탑의 기단부처럼 꾸몄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통일신라시대의 당간지주들은 지주부의 외형에 따라 크게 사천왕사지, 망덕사지, 삼랑사지, 미륵사지, 굴산사지 계열로 나눌 수 있다²⁰⁾.

20) 이호관, 통일신라시대 당간지주와 석교, 미술사학연구(vol.158~159) 논문에서 통일신라의 당간지주 지주부의 치석 수법과 간구와 간공의 시공수법에 따라 4계열로 분류하고 있음(중초사지, 금산사, 불국사 동편·경주 삼랑사지, 경주 보문리 당간지주 계열); 국가문화재 지정신청보고서에 의함.



사천왕사지 당간지주 남동측 전경

본 사천왕사지 당간지주 계열은 평면 사각 석주형의 지주를 세우고 지주의 중간부나 하단부에 지주면을 1단 낮거나 높게 깎은 지주로 안정적인 외관이 특징이다. 또 지주부에 시공되는 간구와 간공의 수량이 상중하 3개소로 많고 간공은 지주에 관통되게 시공하였다. 이는 당간지주의 초기적인 양식으로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건립되었다. 이 계열에 속하는 당간지주는 사천왕사지, 경주 구황동, 남간사지, 경주 보문리, 범수사지 당간지주 등이다.

특히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사천왕사지 당간지주는 우리나라 석조 당간지주의 시원양식으로 분류되는 三杆孔 貫通形 당간지주의

형태를 하고 있다. 그러나 간공이 모두 원형이 아니다. 즉, 세 개의 간공은 통일된 모양이 아니라 上杆孔과 下杆孔은 방형으로, 中杆孔은 원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색적인 수법을 보인다. 언필칭 1圓孔, 2方孔 형식이다.

2020년 현재 문화재로 지정된 당간 및 당간지주는 총 54개로 국보는 청주 용두사지 철당간이 유일하며, 보물이 안양 중초사지당간지주를 포함하여 28개이고, 시도문화재가 상주 북룡동당간지주를 포함하여 25개이다. 이중 현재 당간까지 남아있는 곳으로는 갑사 철당간, 용두사지 철당간, 범주사 철당간, 나주 동문의 석당간, 담양 읍내리 석당간, 칠장사 철당간, 영광 단주리 석당간, 부안 서외리 석당간 등이 있다. 또한 온전한 당간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유물로 공예적 성격으로 만들어진 용두보당(국보 제136호 호암미술관 소장)이 있다.

시대적으로 통일신라시대 때 조성된 것으로 알려진 안양 중초사지당간지주를 포함하여 29개이며, 고려시대 때 조성된 것으로는 청주 용두사지철당간을 포함하여 19개이다. 그밖에 조선시대에 조성된 서외리 당간지주와 시기를 특정 지을 수 없는 당간지주가 5개 있다.



진입부에 위치한 사천왕사지 당간지주



사천왕사지 東측 지주의 네모난 下杆孔



사천왕사지 東측 지주의 둥근 中杆孔



사천왕사지 동측 지주의 네모난 上杆孔

사천왕사지 당간지주는 높이가 2.3m로 비교적 소형에 속한다. 그러나 지하에 매몰된 부분이 정확하지 않아 전체의 길이가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지면으로부터 600mm 정도 높이까지 방형으로 된 것을 그 위로부터는 모서리부분의 각을 다듬어 의장적으로 부드러운 감을 주고 있다. 그밖에는 지주 외측면 양쪽으로 너비 40mm로 모죽임한 것 외 다른 장식은 보이지 않는다. 지주의 크기는 340×500mm이며 지주 간의 간격은 약 530mm이다. 정상부에는 弧形으로 마무리하여 의장적인 꾸밈을 하였다. 특히 상, 중, 하 간공의 간격이 각 580mm로 간공 배치에 동일한 간격을 유지하여 관통하였다.

이처럼 장대하고 화려하지는 않지만 최상단부에서 450mm, 1150mm, 1900mm되는 곳에 상부부터 방형(90×120mm), 원형(지름 110mm), 방형(105×135mm) 간공이 方, 圓, 方 교대로 관통되어 있어서 구조적으로 안정을 찾고자 한 노력이 보인다.

그렇지만 지금의 사천왕사지 당간지주는 1926년에 인근 민가 주변에 있다가 현재의 위치로 옮겨졌기 때문에²¹⁾ 지주가 동서 방향으로 배치된 것과 지주 간격이 530mm라는

21) 藤島亥治郎, 1933, 『慶州を中心とする新羅時代幢竿支柱論, 史蹟名勝天然紀念物』 8-11, p.3

것을 토대로 다른 당간지주와의 비교하여 고찰하기에는 논리적으로 다소 무리라고 생각된다.

2) 3간공 관통형 당간지주의 발생 시기

당간지주에 명문이 새겨져 있지 않은 경우 우선 그 소속사찰의 창건연대를 바탕으로 추정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신라 지역 3간공 관통형 당간지주 5기의 발생 시기를 추정하는 방법도 유사하다.

사찰명	창건연대	비고
분황사	634년(선덕여왕 3년)	삼국사기 창건 기록
황룡사	533년(진흥왕 3년) 창건 645년(선덕여왕 14년) 완성	삼국사기 창건 기록
사천왕사	679년(문무왕 19년)	삼국사기 창건 기록
보문동사지	창건 기록없음	가람 배치상 7세기 후반~8세기 초로 추정됨
단속사	763년(경덕왕 22년)	삼국사기 창건 기록

표 52. 신라지역 3간공 관통형 당간지주의 조성시기

이처럼 각 사원의 완공된 시기를 보았을 때, 단속사만 8세기 중엽인 763년이며, 나머지는 634년에서 대략 700년 사이에 해당된다. 또한 단속사지 당간지주는 경남 산청에 위치하여 경주지역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 아울러 8세기 이후 작품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외관에 장식성이 뚜렷하여 경주지역 당간지주 조성시기에 비하여 후대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경주의 3간공 관통형 당간지주 4기의 조성시기를 소속된 사원의 건립 시기와 같다고 추정하고 있다.

<먼저 소속사원들 간 거리가 반경 2km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록에 따른 창건, 완공 연대가 비슷하고, 또한 당간지주의 장식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모죽임과 지주부 하단의 1단 줄임 정도의 소박한 장식만이 나타나는데 이는 8세기 이후 다른 사찰에서는 재현되지 않는 모습이라는 점, 사찰의 창건연대와 더불어 원형 3간공(분황사 당간지주)→1원공(圓孔) 2방공(方孔)(사천왕사 당간지주)→3방공(方孔)(보문사지 당간지주)으로 변화되는 과정 등이 그 이유이다.>²²⁾

따라서 경주지역의 당간지주 4기를 우리나라 석조 당간지주의 시원양식이라 보는 데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된다.

22) 경주시, 경주 사천왕사지 당간지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 2020, 37쪽

<붙임4>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 사천왕사와 당간지주의 건립연대 추정

당간지주는 건립시기 기록에 대한 자료를 남기는 경우가 드물어 정확한 건립연대를 알 수 없지만 대부분 사찰건립과 함께 이루어지므로 사찰창건연대와 동일하게 볼 수 있다. 따라서 당간지주의 건립연대는 사천왕사가 건립된 시기와 같은 연대로 추정된다. 즉 삼국사기 창건기록에 의하면 사천왕사는 문무왕 19년(679년)에 창건된 쌍탑식 가람이다. 이 터는 원래 神遊林이라고 하여 신성시되던 곳이었다. 대표적인 호국사찰로서 사세가 대단하였고 신라를 대표하는 사찰이었다. 그래서 창건 당시부터 나름 격을 갖춘 사찰로 출발하였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간지주 역시 7세기 후반인 초창기부터 자리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양식적 특징

사천왕사지 당간지주는 형태 및 치석기법, 지주 고정방법 등을 보았을 때, 우리나라 석조 당간지주의 시원양식으로 분류된다. 현재는 비록 기단과 간대석 등이 없지만 구성하는 석부재의 보존상태가 양호한 편이며, 지주에 3개의 구멍이 관통되는 三杆孔 貫通形 당간지주로 우리나라 석조 당간지주형식에서 시원양식으로 평가되고 있다. 세 개의 간공은 통일된 모양이 아니라 上杆孔과 下杆孔은 방형으로, 中杆孔은 원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나름 당을 지지하려는 구조적 안정을 이루려고 한 흔적이 보인다. 또한 각 간공의 간격을 일정하게 관통시켰다.

위로 올라가면서 체감을 보이고 하부에 1단의 네모난 층을 두었다. 이는 상부보다 하부를 더 넓고 튼튼하게 하여 견고하면서 미적 감각을 고려한 의도라 생각된다.

- 문화재적 가치

본 당간지주는 지주 자체에 대한 장식은 소박한 형태이지만, 전체적인 모습은 단아한 느낌으로 여느 당간지주처럼 평면이 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외관이 둔중하고 완만한 체감을 이루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석조 당간지주의 시원 양식으로 분류되는 三杆孔 貫通形 당간지주이다. 통일신라 석조물처럼 화려한 의장이 없는 초기의 석조 당간지주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정상부를 안에서 밖으로 깎아 弧形으로 만들고 외측면 모서리에 모죽임을 하여 의장적 조형을 보이려고 한 모습도 보인다. 당간지주를 형태에 따라 분류를 할 때, 가장 초기적이고 모범적이 되었을 것으로 보아, 사천왕사지 당간지주계열이라 명명하기도 한다.

따라서 사천왕사지 당간지주는 건립 연대와 보존 상태, 그리고 우리나라 당간지주의

시원 양식이라는 점과 흔치 않은 간공의 형태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가치는 인정된다.

다만 현재의 위치는 원래의 자리가 아니고 절터 부근 민가 옆에 있던 것을 1928년 옮겨 세운 것이라고 하니 장소성을 잃고 있다. 특히 서쪽 지주는 하간공과 중간공 사이가 절단되어 다시 접착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다. 기단과 간대석이 있었는가 하는 가능성도 의문으로 남는다.

따라서 현 상태에서는 국가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지니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본 보고서의 사진과 도면은 국가문화재지정신청서를 참고하였음)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0.10.19	대상문화재	경주 사천왕사지 당간지주	
조사자	성 명	○ ○ ○	전공 분야	한국미술사 (석조미술)
	소 속	○ ○ 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경주 사천왕사지 당간지주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p>경주 사천왕사지는 신라에서 호국의 영산으로 인식된 낭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신라 사천왕사는 문무왕 때 창건된 사찰로 전하고 있으며, 명랑법사가 문두루비법으로 당나라를 물리친 호국 사찰이었다. 그런데 어느 시기에 폐사되어 지금은 사지만 전하고 있는데, 일제강점기에 철로와 차량 도로가 개설되면서 사지의 상당 부분이 훼손된 상태이다. 그동안 여러 번에 걸친 발굴 조사 결과 신라 문화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다양한 유적과 유물이 발견되었다. 지금도 사지에는 금당지와 목탑지, 귀부 등이 전하고 있으며, 당간지주는 도로변에 세워져 있다.</p>
	연혁·유래 및 특징	별첨 【붙임 1】 참고
주요 지정 사항 검토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p>경주 사천왕사지 당간지주는 어느 시기에 옮겨진 것으로 전하고 있어 원위치 여부는 분명하지 않지만, 원형은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당간지주는 전체적인 조영 기법과 양식 등으로 보아 통일신라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지주 하부를 1단 높게 치석하였고, 상중하 3곳에 사각형-원형-사각형의 관통된 간공을 시공하여 비교적 이른 시기의 기법을 보이고 있어 양식사와 기술사적으로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다.</p> <p>그런데 현재 지주 하부가 깊게 매몰되어 있으며, 당간지주와 그 주변에 대한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체적인 조영 기법과 양식 등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향후 추가적인 학술 조사를 통하여 사천왕사와 당간지주와의 관계, 당간지주의 역사적·학술적·예술적·기술적 가치 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당간지주의 원위치 여부는 사천왕사의 진입공간이나 가람 배치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정밀 발굴 조사를 통하여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당간지주는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와 인접하고 있어 보존 환경이 나쁜 실정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존 대책이 우선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학술 조사와 보완이 이루어진 후 국가 지정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p>
	지정 대상 및 범위	<p><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p> <p><보호물></p>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경주 사천왕사지 당간지주는 학술적으로 귀중한 자료로 사료되지만, 하부가 깊게 매몰되어 있어 전체적인 형태와 조영 기법, 양식 등에 대한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한쪽 당간지주는 절단된 흔적도 있어 정밀 학술 조사를 통하여 원형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사천왕사지 일대가 철로와 도로 개설 등으로 변형되면서 당간지주가 옮겨진 것으로도 전하고 있어 정밀 발굴 조사를 통하여 원위치를 확인할 필요도 있다. 나아가 당간지주가 도로와 인접하고 있어 보존 환경이 좋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규명과 대책이 선행된 후 국가 지정 여부와 보존 등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의견	경주 사천왕사지 당간지주는 통일신라시대 중에서도 비교적 이른 시기의 당간지주 양식을 함유하고 있어 역사적, 학술적으로 귀중한 문화재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당간지주의 원형과 원위치, 전체적인 조영 기법과 양식 등이 학술적으로 면밀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그리고 당간지주의 보존 환경도 좋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정밀 학술 조사를 통하여 당간지주의 역사적·학술적·예술적·기술적 가치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함께 관리와 보존을 위한 대책 등을 강구한 후에 국가 지정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1 년 8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붙임 1】

<연혁·유래 및 특징>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경주 사천왕사지 당간지주(慶州 四天王寺址 幢竿支柱)
- 소 유 자 : 경주시
- 소 재 지 : 경상북도 경주시 배반동 949-2
- 수 량 : 1基
- 규 격 : 전체 높이 232cm
- 재 질 : 화강암
- 조성연대 : 통일신라시대
- 현 상 :

1. 경주 사천왕사의 연혁과 당간지주

신라 사천왕사지는 경주 중심가에서 동남쪽에 있는 狼山의 남쪽 낮은 구릉에 위치한다. 낭산은 신라 시대 호국 영산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금도 선덕여왕릉과 능지탑을 비롯하여 다수의 신라 유적이 전해지고 있다. 사천왕사는 신라 문무왕 때(재위 661~681.07) 당나라 군사를 물리치기 위하여 명랑법사의 건의로 낭산 神遊林에 절을 세우고 文豆婁秘法을 행하자 갑자기 폭풍이 일어나 당나라 배가 모두 침몰하였다는 창건 연기가 전하고 있다.²³⁾ 그리고 679년에 절이 완성되었다고 한다.²⁴⁾ 사천왕사 조성 시에는 유명한 신라의 조각가 良志가 예술적 기량을 발휘한 곳이기도 하다. 이처럼 사천왕사는 많은 신라 사찰 중에서 창건 시기와 배경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천왕사가 자리 잡은 신유림은 신라 味鄒王 이래 前佛時代 7대 가람 터의 하나로 전해진다. 선덕여왕 때에는 이곳이 바로 도리천이라 하여 신성시하였다. 신라 멸망 직전에는 사천왕사 五方神이 쥘 弓弦이 끊어져 멸망의 징후가 나타났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사천왕사가 신라 사회에서 중요한 사찰로 인식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처럼 신라 사천왕사는 명랑법사의 문두루비법이 행해진 것으로 보아 밀교 신앙과 관련이 있었던 신라 호국 사찰 중에 하나였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 들어와 문종 대에는 사천왕사에서 문두루 도량을 27일간 개최하였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²⁵⁾ 이후 조선 시대 김시습(1435~1493년)의 詩에 의하면, 사지가 민가로 변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고려 말기에 소실되면서 사찰로서의 기능을

23) 『三國遺事』, 卷 2, 紀異 2, 文武王法敏.

24) 『三國史記』, 卷 7, 新羅本紀 第 7, 文武王 19年.

25) 『高麗史』 卷 第 9, 世家 9, 文宗 28年.

않았거나, 조선 초기에 들어와 불교계가 위축되면서 사천왕사도 폐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심 사역에 대한 발굴 조사 시 다양한 유적과 유물이 출토되었으며, 사지의 규모는 동서 약 110m, 남북 약 120m로 확인되었다.²⁶⁾ 지금도 사지에는 일제강점기에 개설된 철로가 지나가고 있으며,²⁷⁾ 사지 일대에 목탑을 비롯한 여러 건물지와 초석, 목이 잘린 2기의 귀부 등이 남아있다.

이러한 사천왕사의 연혁, 당간지주의 조영 기법과 양식 등으로 보아 현존하는 사천왕사지 당간지주는 통일신라시대에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통일신라시대 사천왕사가 호국 사찰로 창건된 이후, 당시 수도였던 경주를 중심으로 여러 사찰에서 사찰 입구에 당간과 당간지주의 건립이 성행하자 사천왕사에도 당을 걸기 위한 당간과 당간지주를 건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천왕사지 당간지주는 일제강점기에 원위치에서 옮겨진 것으로도 전하고 있다.²⁸⁾



경주 사천왕사지 전경과 당간지주의 위치

26) 사천왕사지는 일제강점기 조사 이후 방치되다가 사지에 대한 보존 관리 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 의하여 발굴 조사 되었다.

27) 일제강점기에 호국의 영산이자 사찰이었던 낭산과 사천왕사의 지맥을 갈라놓는 다는 명복으로 금당지와 강당지를 가로지르는 철로가 개설되었다고 한다(동국대 경주캠퍼스 편, 『慶州狼山遺蹟調査』古蹟調査報告 第1冊, 1985, p.49).

28) 현재 사천왕사지 입구에는 목이 잘린 2기의 龜趺가 동서로 배치되어 있다. 귀부 중 서귀부가 원위치에서 다소 이동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귀부의 위치로 보아 사천왕사지 당간지주는 현재 개설되어 있는 도로나 그 앞쪽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주 사천왕사지 당간지주(1930년대)



경주 사천왕사지 당간지주(1950년대)

2. 경주 사천왕사지 당간지주의 조영 기법과 양식

현재 사천왕사지 당간지주는 통일신라 시대 창건된 사천왕사 경내로 들어가는 입구로 추정되는 위치에 동서로 세워져 있다. 그런데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일제강점기인 1928년 사천왕사지 부근 민가 옆에 있었던 것을 현재의 자리로 옮겨 세운 것으로도 전한다.²⁹⁾ 이 사실이 맞는다면, 현재의 당간지주 위치는 원위치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³⁰⁾ 당간과 당간지주는 일반적으로 사찰로 들어가는 진입공간에 세워지기 때문에 가람의 면모와 현황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기준 자료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사천왕사지 당간지주는 현재의 위치가 원위치인지 규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현재 두 당간지주 중에서 서쪽에 위치한 당간지주는 간공 부위가 절단되어 결구한 흔적이 있다. 현재로서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 없다. 다만, 어느 시기에 파손된 것을 결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부분은 사천왕사지 당간지주의 원형과 원위치와도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사와 검토가 요구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현재 당간지주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기단부 시설의 유무와 두 당간지주 사이에 당간을 받쳤던 간대석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래부터 기단부와 간대석을 마련하지 않았는지, 주변 어딘가에 매몰되어 있는지 등이 규명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분명히 당간과 당간지주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시설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사천왕사지 당간지주의 원형과 원위치와도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29) 藤島玄治郎, 『慶州を中心とする新羅時代幢竿支柱論』, 『史蹟名勝天然記念物』 제8집 제11호 별쇄, 1933, p.3.

藤島玄治郎, 『朝鮮建築史論』, 景仁文化社, 1982, p.49.

30) 임기표, 『統一新羅時代の 幢竿과 幢竿支柱 研究』, 『文化史學』 6·7合號, 韓國文化史學會, 1997.



(전경)



(측면)

경주 사천왕사지 당간지주

사천왕사지 당간지주는 평면 사각형의 전형적인 석주 형태로 제작되었으며, 상부로 올라가면서 조금씩 좁아지기는 하지만 큰 변화없이 다듬었다. 그리고 당간지주의 하부를 지면에서 62cm 정도 높이까지 1단 높게 치석하였다. 이러한 것은 당간지주의 전체적인 외관을 안정감 있게 보이고, 견고성을 주기 위한 수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당간지주의 바깥면 외곽의 모서리를 좁게나마 4cm 정도로 모죽임하였으며, 지주 상단부는 안쪽면에서 바깥면으로 나가면서 부드럽게 호형을 그리도록 치석하여 다소나마 장식적인 기교를 적용하였다. 당간지주의 조영 기법과 양식은 간략하고 소박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당간지주의 표면을 깔끔하게 다듬는 등 정연한 인상을 주고 있다.



(당간지주 하부)



(당간지주 정상부)

경주 사천왕사지 당간지주

그리고 당간을 고정하기 위한 간은 당간지주의 안쪽면에서 바깥면으로 관통시켜 시공하였는데, 상중하 3곳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배치하였다. 현재 상부 간공은 사각형(12×9cm), 중간 간공은 원형(지름 11cm), 하부 간공은 사각형(14×10cm)으로 간공의 평면 형태에 변화를 주었다. 일반적으로 동일 당간지주에서는 같은 평면의 간공을 마련하는데, 사천왕사지 당간지주처럼 간공의 평면 형태에 변화를 준 사례는 많지 않다.

경주 사천왕사지 당간지주의 하부가 어느 정도 문혔는지 확인할 수 없어 전체적인 규모와 조영 기법, 기단부와 간대석 등은 알 수 없지만, 노출된 당간지주의 너비와 높이 등을 고려할 때 상당히 큰 규모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경주 사천왕사지 당간지주는 신라 사천왕사의 창건 시기와 내력, 사천왕사지 당간지주의 조영 기법과 양식, 경주 지역에 전하고 있는 다른 당간지주와의 양식적인 비교 등으로 보아 비교적 이른 시기인 통일신라 초기에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경주 사천왕사지 당간지주는 전체적인 조영 기법과 양식 등이 경주 남간사지 당간지주, 경주 보문사지 당간지주 등과 친연성을 보여 주목된다.³¹⁾



경주 남간사지 당간지주



경주 보문사지 당간지주

3. 경주 사천왕사지 당간지주의 가치와 의견

경주 사천왕사지 당간지주는 신라 사천왕사의 창건 시기와 내력, 당간지주의 조영 기법과 양식, 통일신라시대 들어와 세워진 경주 지역의 다른 당간지주와의 양식적인 비교 등을 통하여 볼 때 상당히 우수한 장인에 의하여 비교적 이른 시기에 건립되었을 것으

31) 엄기표, 『한국의 당간과 당간지주』, 학연문화사, 2004.

로 추정되어, 역사적, 학술적, 기술적 가치 등이 높은 당간지주로 평가된다.

이처럼 경주 사천왕사지 당간지주는 귀중한 자료로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사료되지만, 일제강점기에 옮겨진 것으로도 전하고 있어 원위치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당간지주의 하부가 매몰되어 있어 기단부와 간대석을 비롯한 당간지주의 전체적인 조영 기법과 양식 등에 대한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한쪽 지주는 절단되어 결구한 상태이다. 따라서 발굴 조사 등 정밀 학술 조사를 통하여 기단부와 간대석의 유무를 비롯하여 당간지주의 원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사천왕사지 당간지주는 개발로 인한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차량 통행이 상당히 많은 도로와 인접하고 있어 보존 환경이 열악한 상태로 이에 대한 보존 대책 등도 강구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학술적인 조사와 규명 등이 선행된 이후 국가 지정 여부를 재검토하고, 보존 관리 등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0.10.19.	대상문화재	경주 사천왕사지 당간지주	
조사자	성 명	○ ○ ○	전공 분야	미술사
	소 속	○ ○ ○ ○ 박물관	직위(직책)	관장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경주 사천왕사지 당간지주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1 년 2 월 일

제출자

○ ○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1. 개요

- 명 칭 : 경주 사천왕사지 당간지주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배반동 949-2
- 소유자 : 경주시
- 관리자 : 경주시
- 수 량 : 1기
- 재 질 : 석재(화강암)
- 조사일시 : 2020. 10. 19.

2. 현상 및 특징

1) 당간지주의 형식

당간지주는 사천왕사지 입구 진입부에 동서로 위치해 있다. 형태는 외부에 문양이 없고 지주의 상단 외측은 호선을 그리며 모죽임으로 되어 있다. 또한 하단부는 단을 두어 상단의 지주보다 두껍게 처리하여 안정감을 주고 있다. 지주의 간공은 3곳에 마련하였는데, 상단공과 하단공은 방형으로 중단공은 원형으로 되어 있다. 각 간공의 크기도 제각각 다른데, 상단공은 90×120mm, 중단공은 지름 110mm, 하단공은 105×130mm이다. 크기로 보아 방형공으로 마련한 상단공과 하단공에 있어 상단공이 작고 하단공이 큰 것은 내부의 당간을 지지하기 위한 시설물의 크기를 감안했을 때 하단이 커야 지지에 유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간지주는 1928년 일제강점기에 절터 앞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현재의 위치로 이견하였다. 그러나 원 장소에 있을 때의 사진이나 조사 내용이 없어 원래 위치를 확인할 방법은 없다. 또한 당간 내부의 간대석 시설의 유무도 알 수 없는 실정이다.

2) 당간지주의 예술성

사천왕사지 당간지주는 외부의 문양이나 장식을 배제하였고 하단부의 단을 두어 실질적 내구성을 주었으며 시각적으로도 안정성을 추구하였다. 또한 상부의 모죽임이 거의 사선에 가까워 전체적으로 단출한 외형을 보이고 있다. 지주의 간공은 3간공 형식으로 분황사 당간지주와는 달리 상하 방형, 중앙 원형의 변형을 보이고 있어 특이하다. 일반적으로 3간공 형식의 당간이 시원양식으로 보고 있어 본 당간지주는 사천왕사가 창건되던 시기인 7세기 후반경의 작품이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초기 당간지주의 성립과 발전과정을 살필 수 있는 작품으로 볼 수 있다.

3) 조사자 의견

본 당간지주는 3간공 형식과 소박한 외형을 지닌 초기 형태의 당간지주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사천왕사지 창건 당시 건립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지주의 간공이 원형에서 방형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볼 수 있어 초기 당간지주의 변화과정을 살필 수 있는 작품으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이건을 통해 현재의 위치에 자리했음으로 원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지주를 제외한 간대 등 내부 시설이 남아 있지 않아 아쉬움이 따른다. 즉 건립시기에 따른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되나 이건과 현재 남아 있는 작품의 진정성에 다소 아쉬움이 있다. 향후 새로운 조사나 자료를 통한 원위치 비정과 추가 연구를 통한 의미 부여가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이번 지정조사를 통한 보물 승격은 시기상조라고 판단된다.** 다만 지정과는 별도로 현재 당간지주는 7번국도와 매우 밀접해 있고 바로 앞에 신호등과 건널목이 있어 교통사고 발생시 차량이 본 당간지주와 충돌할 가능성이 늘 존재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문화재의 보호시설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15. 공주 반죽동 당간지주 보호구역 추가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충남 공주시 소재 보물 「공주 반죽동 당간지주」 국가지정문화재 보호 구역 추가 지정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보물 「공주 반죽동 당간지주」 주변 인접 토지를 문화재 보존 및 경관 정비를 위하여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충청남도 공주시장
- (2) 대상문화재 : 공주 반죽동 당간지주
 - 소 재 지 : 충남 공주시 반죽동 302-2번지
 - 지 정 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 기존 보호구역 : 충남 공주시 반죽동 265-1번지 등 29필지 5,281.5㎡
 - 추가 보호구역 : 충남 공주시 반죽동 268-1번지 등 16필지 3,861.3㎡

소재지	기존 보호구역			추가지정 보호구역			추가지정 후 보호구역		
	필지	지적면적 (㎡)	지정면적 (㎡)	필지	지적면적 (㎡)	지정면적 (㎡)	필지	지적면적 (㎡)	지정면적 (㎡)
공주시 반죽동	29	5,306.5	5,281.5	16	3,861.3	3,861.3	45	9,167.8	9,142.8

※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에 의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기존 범위로 유지

라. 현지조사의견(2021.09.01.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당간지주는 조사결과 조선 말기에 이전된 것으로 추정되나 확정하기 어렵고, 현 위치에 조설말기부터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임.
- 당간지주의 주변은 가옥이 들어서 있어 열악한 상황이므로 당간지주의 보호와 경관정비를 위해 보호구역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원안가결 10명

붙임 : “공주 반죽동 당간지주” 문화재보호구역 지번 조서 및 지형도면

[붙임] “공주 반죽동 당간지주” 문화재보호구역 지번 조서 및 지형도면

【 지번 조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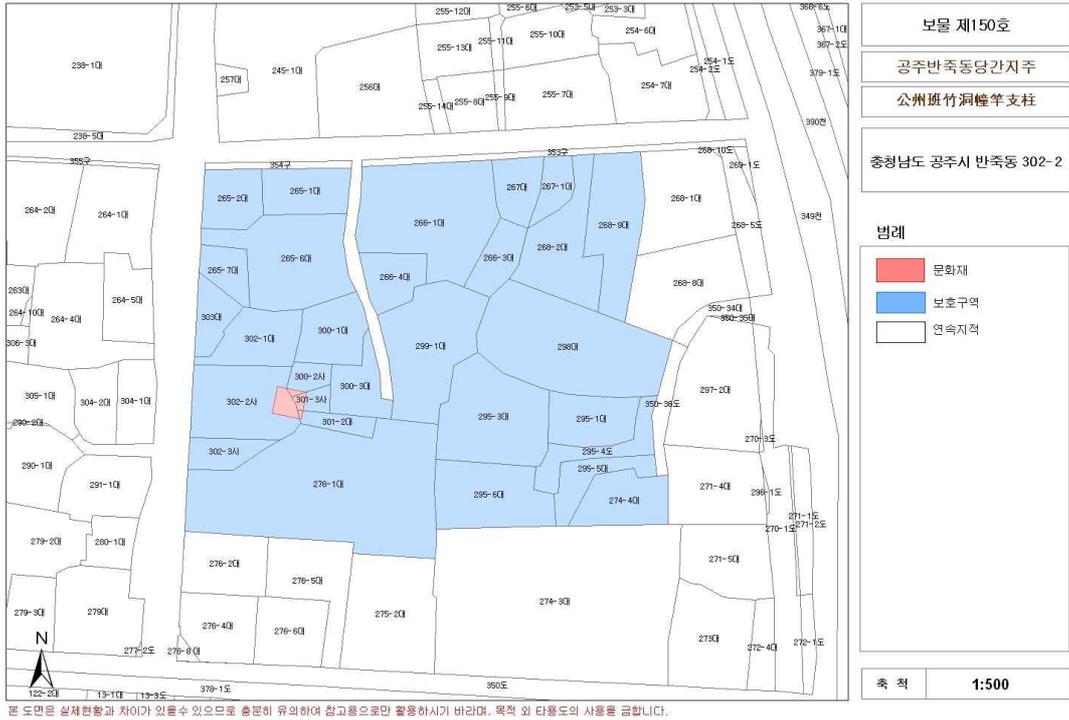
【당초】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보호 구역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반죽동	265-7	대	69.40	69.40	충청남도	홍성군 충남대로 21		
2	반죽동	266-1	대	433.10	433.10	충청남도	홍성군 충남대로 21		
3	반죽동	266-3	대	82.60	82.60	충청남도	홍성군 충남대로 21		
4	반죽동	266-4	대	95.90	95.90	충청남도	홍성군 충남대로 21		
5	반죽동	267	대	91.10	91.10	충청남도	홍성군 충남대로 21		
6	반죽동	267-1	대	54.40	54.40	충청남도	홍성군 충남대로 21		
7	반죽동	268-2	대	228.50	228.50	충청남도	홍성군 충남대로 21		
8	반죽동	268-9	대	231.00	231.00	충청남도	홍성군 충남대로 21		
9	반죽동	295-5	대	92.60	92.60	충청남도	홍성군 충남대로 21		
10	반죽동	295-1	대	138.80	138.80	충청남도	홍성군 충남대로 21		
11	반죽동	295-3	대	307.40	307.40	충청남도	홍성군 충남대로 21		
12	반죽동	295-4	도로	99.20	99.20	충청남도	홍성군 충남대로 21		
13	반죽동	295-6	대	231.40	231.40	충청남도	홍성군 충남대로 21		
14	반죽동	298	대	482.60	482.60	충청남도	홍성군 충남대로 21		
15	반죽동	276-1	대	814.00	814.00	공주시외1인	공주시 봉황로 1		
16	반죽동	301-2	대	39.70	38.70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17	반죽동	301-3	사적지	24.10	19.20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18	반죽동	300-3	대	98.80	98.80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19	반죽동	300-2	사적지	35.40	33.30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20	반죽동	302-3	대	69.40	69.40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21	반죽동	300-1	대	133.90	133.90	충청남도	홍성군 충남대로 21		
22	반죽동	302-1	대	132.20	132.20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23	반죽동	265-1	대	125.70	125.70	충청남도	홍성군 충남대로 21		
24	반죽동	302-2	대	234.70	217.70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25	반죽동	265-6	대	310.70	310.70	충청남도	홍성군 충남대로 21		
26	반죽동	265-2	대	105.80	105.80	충청남도	홍성군 충남대로 21		
27	반죽동	303	대	72.70	72.70	충청남도	홍성군 충남대로 21		
28	반죽동	299-1	대	329.30	329.30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29	반죽동	274-4	대	142.10	142.10	충청남도	홍성군 충남대로 21		
계		29필지		5,306.5	5,281.5				

【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보호 구역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반죽동	265-7	대	69.40	69.40	충청남도	홍성군 충남대로 21		
2	반죽동	266-1	대	433.10	433.10	충청남도	홍성군 충남대로 21		
3	반죽동	266-3	대	82.60	82.60	충청남도	홍성군 충남대로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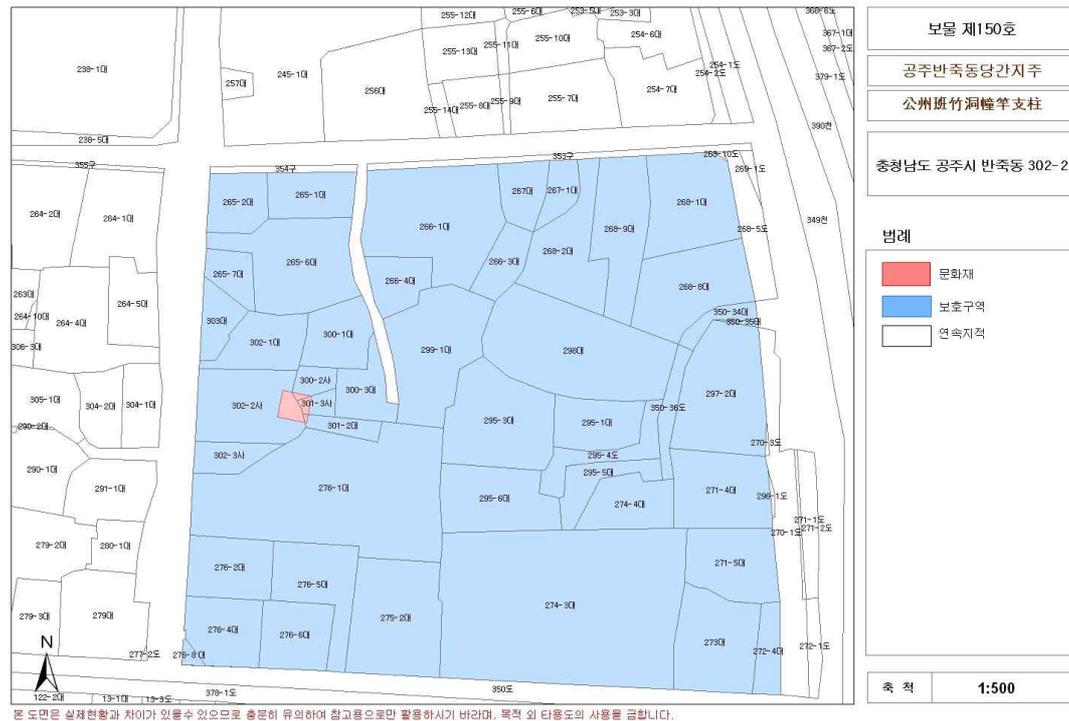
4	반죽동	266-4	대	95.90	95.90	충청남도	홍성군 충남대로 21	
5	반죽동	267	대	91.10	91.10	충청남도	홍성군 충남대로 21	
6	반죽동	267-1	대	54.40	54.40	충청남도	홍성군 충남대로 21	
7	반죽동	268-2	대	228.50	228.50	충청남도	홍성군 충남대로 21	
8	반죽동	268-9	대	231.00	231.00	충청남도	홍성군 충남대로 21	
9	반죽동	295-5	대	92.60	92.60	충청남도	홍성군 충남대로 21	
10	반죽동	295-1	대	138.80	138.80	충청남도	홍성군 충남대로 21	
11	반죽동	295-3	대	307.40	307.40	충청남도	홍성군 충남대로 21	
12	반죽동	295-4	도로	99.20	99.20	충청남도	홍성군 충남대로 21	
13	반죽동	295-6	대	231.40	231.40	충청남도	홍성군 충남대로 21	
14	반죽동	298	대	482.60	482.60	충청남도	홍성군 충남대로 21	
15	반죽동	276-1	대	814.00	814.00	공주시외1인	공주시 봉황로 1	
16	반죽동	301-2	대	39.70	38.70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17	반죽동	301-3	사적지	24.10	19.20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18	반죽동	300-3	대	98.80	98.80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19	반죽동	300-2	사적지	35.40	33.30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20	반죽동	302-3	대	69.40	69.40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21	반죽동	300-1	대	133.90	133.90	충청남도	홍성군 충남대로 21	
22	반죽동	302-1	대	132.20	132.20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23	반죽동	265-1	대	125.70	125.70	충청남도	홍성군 충남대로 21	
24	반죽동	302-2	대	234.70	217.70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25	반죽동	265-6	대	310.70	310.70	충청남도	홍성군 충남대로 21	
26	반죽동	265-2	대	105.80	105.80	충청남도	홍성군 충남대로 21	
27	반죽동	303	대	72.70	72.70	충청남도	홍성군 충남대로 21	
28	반죽동	299-1	대	329.30	329.30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29	반죽동	274-4	대	142.10	142.10	충청남도	홍성군 충남대로 21	
30	반죽동	268-1	대	260.1	260.1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추가
31	반죽동	268-8	대	255.2	255.2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추가
32	반죽동	271-4	대	231.5	231.5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추가
33	반죽동	271-5	대	198.3	198.3	○○○		추가
34	반죽동	272-4	대	63.5	63.5	○○○		추가
35	반죽동	273	대	257.9	257.9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추가
36	반죽동	274-3	대	1163.6	1163.6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추가
37	반죽동	275-2	대	330.6	330.6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추가
38	반죽동	276-2	대	160.4	160.4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추가
39	반죽동	276-4	대	150.7	150.7	○○○		추가
40	반죽동	276-5	대	346.7	346.7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추가
41	반죽동	276-8	대	10.7	10.7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추가
42	반죽동	297-2	대	330.6	330.6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추가
43	반죽동	350-34	대	40.9	40.9	기획재정부	세종시 갈매로 477	추가
44	반죽동	350-35	대	4.5	4.5	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로 11	추가
45	반죽동	350-36	도	56.1	56.1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추가
계		45필지		9,167.8	9,142.8			

【 지형도면 】

< 당 초 >



< 변경 >



【보고사항】

안건번호 건축 2021-09-016

16.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처리결과 보고

가. 보고사항

경북 영천시 소재 보물 「영천 승렬당」 주변 골목시장 길 활성화 사업 등 허가신청 30건에 대하여 자체검토회의 등을 거쳐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나. 처리내용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소 계		30건	원안가결 23건 조건부가결 3건 부결 4건	
보물 영천 승렬당	경북 영천 (○○○)	<input type="checkbox"/> 골목시장 길 활성화 사업 ○ 위치 : 영천시 성내동 7-2,8-2 - 제1구역,2구역,3구역(보호구역 인접) - (1구역) 개별심의 - (2구역) 평지붕 개별심의, 경사지붕 7.5m - (3구역)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 내용 : 건물1동 신축, 주변 부지 포장 - 건축(2구역 내) · 건축면적 : 64.79㎡ · 바닥면적 : 1층(60.6㎡), 2층(60.76㎡) · 연 면 적 : 121.36㎡ · 건축높이 : 7.5m(경사지붕) - 건물 주변 포장(1구역, 3구역) · 아스콘, 콘크리트, 잔디블록 146㎡	원안가결	'21.08.23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p style="text-align: center;">보물 제주 불탑사 오층석탑</p>	<p style="text-align: center;">제주 제주 (○○○)</p>	<p>□ 추락 위험지구 울타리 설치공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제주시 삼양일동 2681-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260m 이격) ○ 사업내용 : 울타리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재 울타리 공사 (다정큼나무 H1.2×W0.8), L=63m(6주) - 개방형 가드레일(H0.9m), L=45m 	원안가결	‘21.08.23
<p style="text-align: center;">보물 경주 효현동 삼층석탑</p>	<p style="text-align: center;">경북 경주 (○○○)</p>	<p>□ 단독주택 신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주시 효현동 412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적 ‘경주 범흥왕릉’ 통합 고시 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2구역(석탑 보호구역에서 176m, 범흥왕릉에서 280m 이격) - (1구역) 개별심의 - (2구역) 경사지붕 7.5m(농가형주택 허용, 발굴조사 선행) * ‘21년 8월 1차 자체회의 결과 : 보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조사 후 재심의 ○ 내용 : 단독주택 신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공사(2구역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 : 660.00m² · 건축규모 : 지상1층, 1동 · 건물최고높이 : 4.94m · 건축구조 : 경량철골조 · 건축면적/연면적 : 89.75m² · 건폐율/용적율 합계 : 13.59% - 토목공사(1구역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터파기 : 74.48m³ · 되메우기 : 23.87m³ · 석축(H=0.3~1.7m) L= 19.00m · 석축(H=0.3~2.6m) L= 25.00m · 석축(H=2.6m) L= 20.00m · 우수관(이중벽OT관) L= 42.0m · 절토고 = 0.80m 	원안가결	‘21.08.23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보물 성주향교 대성전 및 명륜당	경북 성주 (○○○)	<input type="checkbox"/> 회전교차로 설치 ○ 위치 : 성주군 성주읍 예산리 368번지 2호 - 제5구역(보호구역에서 380m 이격) - 도로 신설 및 확장 ○ 내용 : 회전 교차로 설치 - 토공 1식 - 아스콘포장 절삭 후 덧씌우기(T=5cm) A=6,100㎡ - 회전교차로 1차로형 중앙교통섬 B=21.0m - 황금반송나무(H=5.0m) 1주, 둥근반송나무(H=1.5m) 12주	원안가결	'21.08.23
보물 문경 봉암사 삼층석탑	경북 문경 (○○○)	<input type="checkbox"/> 회양산 위험구간 데크설치 ○ 위치 : 문경시 가은읍 원북리 산93 외 2필지(산93-4, 산54-3) - 제1구역(문화재에서 90m 이격) - 개별심의 ○ 내용 : 탐방로 위험구간 데크 및 계단 설치 - A~F구간 천연목재데크(90*21t) 총 길이 53.0m, 폭 1.2m	원안가결	'21.08.23
국보 영천 거조사 영산전	경북 영천 (○○○)	<input type="checkbox"/> 노후 단독주택 철거 후 신축(허가변경) ○ 위치 : 영천시 청통면 신원리 583번지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313m 이격) - 개별심의 * '20년 12월 2차 자체회의 결과 : 원안가결 ○ 내용 : 노후 단독주택 철거 후 신축 - 대지면적 : 640.00㎡(변경없음) - 건축면적 : 140.42㎡ → 148.92㎡ - 연면적 : 131.56㎡ → 131.96㎡ - 높이 : 5.85m(변경없음) - 구조 : 경량철골조	원안가결	'21.08.23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p style="text-align: center;">보물 화성 용주사 대응보전</p>	<p style="text-align: center;">경기 화성 (○○○)</p>	<p>□ 호성전 복원사업(변경허가, 재심의)</p> <p>○ 위치 : 경기 화성시 송산동 188</p> <p>- 보호구역 내(대응보전으로부터 15.54m 이격)</p> <p>* '21년 1차 건축분과위원회: 보류</p> <p>- 현지조사 후 재심의</p> <p>* '21년 3차 건축분과위원회: 조건부가결</p> <p>- 관계전문가 자문 받아 세부양식 검토</p> <p>* '21년 8월 1차 자체회의: 보류</p> <p>- 현지조사 후 재심의</p> <p>※ 현지조사의견(○○○, '21.08.19.)</p> <p>- '시방칠등각'과 대칭되는 지점에 건립 함으로 화재 시 대응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더 축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함</p> <p>○ 사업내용 : 호성전 복원사업</p> <table border="1" data-bbox="552 1122 1114 1854"> <thead> <tr> <th data-bbox="552 1122 687 1200">구 분</th> <th data-bbox="687 1122 842 1200">조건부가결 ('21.3차)</th> <th data-bbox="842 1122 1114 1200">금 회</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552 1200 687 1249">건축면적</td> <td data-bbox="687 1200 842 1249">49.95㎡</td> <td data-bbox="842 1200 1114 1249">변경없음</td> </tr> <tr> <td data-bbox="552 1249 687 1299">구조</td> <td data-bbox="687 1249 842 1299">한식목구조</td> <td data-bbox="842 1249 1114 1299">변경없음</td> </tr> <tr> <td data-bbox="552 1299 687 1417">양식</td> <td data-bbox="687 1299 842 1417">팔작지붕, 겹처마, 초익공</td> <td data-bbox="842 1299 1114 1417">변경없음</td> </tr> <tr> <td data-bbox="552 1417 687 1467">높이</td> <td data-bbox="687 1417 842 1467">6.63m</td> <td data-bbox="842 1417 1114 1467">변경없음</td> </tr> <tr> <td data-bbox="552 1467 687 1547">대응보전과의 거리</td> <td data-bbox="687 1467 842 1547">15.54m</td> <td data-bbox="842 1467 1114 1547">16.4m</td> </tr> <tr> <td data-bbox="552 1547 687 1854">기타</td> <td data-bbox="687 1547 842 1854">-</td> <td data-bbox="842 1547 1114 1854"> <p>○ 1개소 초석 재사용</p> <p>○ 용마루, 내림마루 양성바름</p> <p>○ 내림마루 용두설치</p> <p>○ 배면 화방벽 하단 설치</p> <p>○ 측면 퇴칸 두짝문 설치</p> </td> </tr> </tbody> </table>	구 분	조건부가결 ('21.3차)	금 회	건축면적	49.95㎡	변경없음	구조	한식목구조	변경없음	양식	팔작지붕, 겹처마, 초익공	변경없음	높이	6.63m	변경없음	대응보전과의 거리	15.54m	16.4m	기타	-	<p>○ 1개소 초석 재사용</p> <p>○ 용마루, 내림마루 양성바름</p> <p>○ 내림마루 용두설치</p> <p>○ 배면 화방벽 하단 설치</p> <p>○ 측면 퇴칸 두짝문 설치</p>	<p style="text-align: center;">원안가결</p>	<p style="text-align: center;">'21.08.23</p>
		구 분	조건부가결 ('21.3차)	금 회																					
		건축면적	49.95㎡	변경없음																					
		구조	한식목구조	변경없음																					
		양식	팔작지붕, 겹처마, 초익공	변경없음																					
		높이	6.63m	변경없음																					
		대응보전과의 거리	15.54m	16.4m																					
		기타	-	<p>○ 1개소 초석 재사용</p> <p>○ 용마루, 내림마루 양성바름</p> <p>○ 내림마루 용두설치</p> <p>○ 배면 화방벽 하단 설치</p> <p>○ 측면 퇴칸 두짝문 설치</p>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p style="text-align: center;">보물 경주 삼랑사지 당간지주</p>	<p style="text-align: center;">경북 경주 (○○○)</p>	<p>□ 영마을삼거리 교통신호기 개선공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주시 성건동 620번지 289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30m 이격) - 개별심의 ○ 내용 : 신호등 개선/설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호등철주 설치 : 2개 - 최고높이 : 7M - 굴착 : 제어선 매설(매설깊이 0.6M) 1.5M×12M=18m², 신호철주 기초(깊이 1.5M) 1.2M×1.2M×2개소=2.88m² - 재포장 : 제어선 매설 + 신호철주 기초 = 20.88m² 	원안가결	‘21.08.23
<p style="text-align: center;">보물 함안 대산리 석조삼존상</p>	<p style="text-align: center;">경남 함안 (○○○)</p>	<p>□ 금천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함안군 함안면 대산리 1242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구역(보호구역에서 60m 이격) - 도로확장 개별심의 ○ 목적 : 차량교행, 도로침수 예방 ○ 내용 : 도로 확포장(L=547m, B=8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면적 : 7,435m² - 토공 : 흙깎기(토사) 901m³, 흙쌓기(노상) 878m³, 터파기 793m³, 되메우기 568m³, 사토 525m³ - 배수공 : 종배수관(D500) 243.0m, 횡배수관(D400~800) 97.0m, 우수받이 설치 23EA, L형측구 설치 320.0m, 암거 설치 7.0m, U형개거 설치 91.5m, 집수정설치 9개소, 맨홀승상 4개소 - 포장공 : 아스콘포장 6,438m², 콘크리트포장 5.2m², 교면포장 1,054m² - 부대공 : 메쉬웬스 32m, 가드레일 342m, 차선도색 등 	원안가결	‘21.08.23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보물 밀양 표충사 삼층석탑	경남 밀양 (○○○)	<input type="checkbox"/> 표충사 수선당 철거 후 건립 ○ 위치 : 밀양시 단장면 구천리 23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7m 이격) - 개별심의 ○ 내용	원안가결	'21.08.23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현황</th> <th>계획</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면적 (용도)</td> <td>- 지상1층 67.2㎡(선방)</td> <td>- 지상1층 100.97㎡(공양간)</td> </tr> <tr> <td>- 지하1층 38.96㎡(샤워장)</td> <td>- 지하1층 119.33㎡(선방)</td> </tr> <tr> <td>높이</td> <td>전체 8.7m (정면 5.9m)</td> <td>전체 9.9m (정면 7.2m)</td> </tr> <tr> <td>구조</td> <td>철근콘크리트</td> <td>- 지상1층 한식목구조, 오랑가, 민도리 - 지하1층 철근콘크리트</td> </tr> <tr> <td>지붕</td> <td>흙처마, 맞배지붕</td> <td>흙처마, 맞배지붕</td> </tr> </tbody> </table>			구분	현황	계획	면적 (용도)	- 지상1층 67.2㎡(선방)	- 지상1층 100.97㎡(공양간)	- 지하1층 38.96㎡(샤워장)	- 지하1층 119.33㎡(선방)	높이	전체 8.7m (정면 5.9m)	전체 9.9m (정면 7.2m)	구조	철근콘크리트	- 지상1층 한식목구조, 오랑가, 민도리 - 지하1층 철근콘크리트	지붕	흙처마, 맞배지붕	흙처마, 맞배지붕
		구분			현황	계획															
		면적 (용도)			- 지상1층 67.2㎡(선방)	- 지상1층 100.97㎡(공양간)															
					- 지하1층 38.96㎡(샤워장)	- 지하1층 119.33㎡(선방)															
높이	전체 8.7m (정면 5.9m)	전체 9.9m (정면 7.2m)																			
구조	철근콘크리트	- 지상1층 한식목구조, 오랑가, 민도리 - 지하1층 철근콘크리트																			
지붕	흙처마, 맞배지붕	흙처마, 맞배지붕																			
높이	전체 8.7m (정면 5.9m)	전체 9.9m (정면 7.2m)																			
구조	철근콘크리트	- 지상1층 한식목구조, 오랑가, 민도리 - 지하1층 철근콘크리트																			
지붕	흙처마, 맞배지붕	흙처마, 맞배지붕																			
보물 화천 계성리 석등	강원 화천 (○○○)	<input type="checkbox"/> 표지석 설치 ○ 위치 : 화천군 하남면 계성리 582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110m 이격) - 원지형 보존 ○ 목적 : 한암대종사 선양 표지석 설치 ○ 내용 - 사업면적 : 67㎡ - 사업내용 : 표지석 설치 · 표지석(H=2.0m*B=1.0m), 기단석(H=0.5m*B=2.0m)	원안가결	'21.08.23																	
		<input type="checkbox"/> 승렬당 주변정비공사 ○ 위치 : 영천시 과전동 70-1 외 2필지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6m 이격) - 개별심의 ○ 내용 : 건물 철거 부지 콘크리트 포장 - 면적 : 117.68㎡			원안가결	'21.08.23															
보물 영천 승렬당	경북 영천 (○○○)	<input type="checkbox"/> 승렬당 주변정비공사 ○ 위치 : 영천시 과전동 70-1 외 2필지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6m 이격) - 개별심의 ○ 내용 : 건물 철거 부지 콘크리트 포장 - 면적 : 117.68㎡	원안가결	'21.08.23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보물 해남 명량대첩비	전남 해남 (○○○)	<input type="checkbox"/> 단독주택 신축 ○ 위치 : 해남군 문내면 동외리 887-1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170m 이격) ○ 사업내용 : 단독주택 신축 - 대지면적 : 565㎡ - 건축면적 : 99.79㎡ - 연 면 적 : 99.79㎡ - 구 조 : 일반철골구조 - 최고높이 : 5.07m	원안가결	'21.08.23
보물 청도 석빙고	경북 청도 (○○○)	<input type="checkbox"/> 제1종 근린생활시설 증축 ○ 위치 : 청도군 화양읍 동상리 45-1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240m 이격) - 원지형 보존 ○ 내용 : 창고 및 화장실 1동 증축 - 건축(연)면적 : 13.2㎡ - 건물높이 : 용마루 4.01m(1층) - 구조양식 : 한식목구조 맞배지붕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 사업대상지 기허가 사항('16년) - 제1종 근린생활시설(음식점) 신축 · 건축(연)면적 : 145.8㎡ · 건물높이 : 용마루 7.26m(1층) · 구조양식 : 한식목구조 팔작지붕 </div>	원안가결	'21.09.06
보물 제천 장락동 칠층모전석탑	충북 제천 (○○○)	<input type="checkbox"/> 주유소 세차동 증축 ○ 위치 : 제천시 장락동 419-4번지 - 제4구역(보호구역에서 450m 이격) - 평지붕 11m이하, 경사지붕 15m이하 ○ 사업내용 : 주유소 세차동 증축 - 대지면적 : 364㎡ - 증축 건축(연)면적 : 44㎡ - 층 수 : 지상 1층 - 구 조 : 경량철골구조 - 최고높이 : 4.5m	원안가결	'21.09.06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보물 안동 석빙고	경북 안동 (○○○)	<input type="checkbox"/> 안동문화관광단지 생태순환로 조성사업 ○ 위치 : 안동시 성곡동 산190번지 외 4필지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267m 이격) - 개별심의 ○ 내용 : 산책로 조성(L=3,295.6m) - 야자매트(B=2.0m, L=1,764.0m) - 데크(B=2.0~2.5m, L=601.0m) - 목계단(B=2.0m, L=520.5m) - 목교(B=2.0m, L=23.4m) - 보도블록포장(B=2.3~2.8m, L=106.6m) - 운동시설(1개소) - 휴게시설(4개소) - 종합안내판(1개소) - 해설안내판(2개소)	원안가결	'21.09.06
보물 홍천 희망리 당간지주	강원 홍천 (○○○)	<input type="checkbox"/> 홍천강 친수공간 조성 ○ 위치 :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 402-1, 467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약150m 이격) - 개별심의 ○ 내용 - 홍천강 보행 데크 확장, 전망대 설치 (L=362.4m, B=1.0~12.5m)	원안가결	'21.09.06
보물 서울 인조별서 유기비	서울 은평 (○○○)	<input type="checkbox"/> 단독주택 철거 ○ 위치 : 은평구 역촌동 8-45 - 제1구역(문화재에서 19m 이격) ○ 사업내용 : 단독주택 철거 - 대지면적 : 119㎡ - 철거면적 : 71.93㎡(지상1층) - 구조 : 연와조 - 철거목적 : 건물 철거 후 공중화장실, 주민 다목적공간 신축 및 기존 어린이공원과 연결 - 안전대책 : 철거 감리와 소음 및 진동에 대한 방안 마련	원안가결	'21.09.06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보물 광주 지산동 오층석탑	광주 동구 (○○○)	<input type="checkbox"/>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변경허가) ○ 위치 : 동구 지산동 441-2번지 일원 - 제5구역(보호구역에서 60m 이격) - 최고높이 40m이하 * '15년 11차 건축분과위원회 : 보류 -현지조사 후 재심의 * '15년 12차 건축분과위원회 : 부결 -역사문화경관 저해 *'16년 4차 건축분과위원회 : 원안가결 ○ 사업내용 :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원안가결	'21.09.06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원안가결 ('16.4차)</th> <th>금회</th> </tr> </thead> <tbody> <tr> <td>대지면적</td> <td>28,773.46㎡</td> <td>26,145.84㎡</td> </tr> <tr> <td>건축면적 (연면적)</td> <td>5,069.83㎡ (91,182.99㎡)</td> <td>7,741.96㎡ (85,097.64㎡)</td> </tr> <tr> <td>동수</td> <td>11동 (636세대)</td> <td>8동 (474세대)</td> </tr> <tr> <td>층수</td> <td>지하2층, 지상30층</td> <td>지하2층, 지상25층</td> </tr> <tr> <td rowspan="11">최고높이</td> <td>101동(82.2m)</td> <td>101동(40.0m)</td> </tr> <tr> <td>102동(63.43m)</td> <td>102동(54.0m)</td> </tr> <tr> <td>103동(49.47m)</td> <td>103동(70.8m)</td> </tr> <tr> <td>104동(48.93m)</td> <td>104동(70.8m)</td> </tr> <tr> <td>105동(32.63m)</td> <td>105동(56.8m)</td> </tr> <tr> <td>106동(49.47m)</td> <td>106동(42.8m)</td> </tr> <tr> <td>107동(91.43m)</td> <td>107동(42.8m)</td> </tr> <tr> <td>108동(73.7m)</td> <td>108동(34.4m)</td> </tr> <tr> <td>109동(63.43m)</td> <td></td> </tr> <tr> <td>110동(49.43m)</td> <td></td> </tr> <tr> <td>111동(51.24m)</td> <td></td> </tr> <tr> <td>건축구조</td> <td>철근콘크리트</td> <td>철근콘크리트</td> </tr> <tr> <td rowspan="6">주요변경 사항</td> <td>(5구역내) 103동 (15층, 49.47m)</td> <td>(5구역내) 101동 (14층, 40.0m)</td> </tr> <tr> <td>104동 (15층, 48.93m)</td> <td>-</td> </tr> <tr> <td>105동 (9층, 32.63m)</td> <td>-</td> </tr> <tr> <td>106동 (15층, 49.47m)</td> <td>106,107동 (14층, 42.8m)</td> </tr> <tr> <td>110동 (15층, 49.43m)</td> <td>108동 (12층, 34.4m)</td> </tr> <tr> <td></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원안가결 ('16.4차)	금회	대지면적	28,773.46㎡	26,145.84㎡	건축면적 (연면적)	5,069.83㎡ (91,182.99㎡)	7,741.96㎡ (85,097.64㎡)	동수	11동 (636세대)	8동 (474세대)	층수	지하2층, 지상30층	지하2층, 지상25층	최고높이	101동(82.2m)	101동(40.0m)	102동(63.43m)	102동(54.0m)	103동(49.47m)	103동(70.8m)	104동(48.93m)	104동(70.8m)	105동(32.63m)	105동(56.8m)	106동(49.47m)	106동(42.8m)	107동(91.43m)	107동(42.8m)	108동(73.7m)	108동(34.4m)	109동(63.43m)		110동(49.43m)		111동(51.24m)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주요변경 사항	(5구역내) 103동 (15층, 49.47m)	(5구역내) 101동 (14층, 40.0m)	104동 (15층, 48.93m)	-	105동 (9층, 32.63m)	-	106동 (15층, 49.47m)	106,107동 (14층, 42.8m)	110동 (15층, 49.43m)	108동 (12층, 34.4m)		
		구 분			원안가결 ('16.4차)	금회																																																				
		대지면적			28,773.46㎡	26,145.84㎡																																																				
		건축면적 (연면적)			5,069.83㎡ (91,182.99㎡)	7,741.96㎡ (85,097.64㎡)																																																				
		동수			11동 (636세대)	8동 (474세대)																																																				
		층수			지하2층, 지상30층	지하2층, 지상25층																																																				
		최고높이			101동(82.2m)	101동(40.0m)																																																				
					102동(63.43m)	102동(54.0m)																																																				
					103동(49.47m)	103동(70.8m)																																																				
104동(48.93m)	104동(70.8m)																																																									
105동(32.63m)	105동(56.8m)																																																									
106동(49.47m)	106동(42.8m)																																																									
107동(91.43m)	107동(42.8m)																																																									
108동(73.7m)	108동(34.4m)																																																									
109동(63.43m)																																																										
110동(49.43m)																																																										
111동(51.24m)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주요변경 사항	(5구역내) 103동 (15층, 49.47m)	(5구역내) 101동 (14층, 40.0m)																																																								
	104동 (15층, 48.93m)	-																																																								
	105동 (9층, 32.63m)	-																																																								
	106동 (15층, 49.47m)	106,107동 (14층, 42.8m)																																																								
	110동 (15층, 49.43m)	108동 (12층, 34.4m)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보물 광주 지산동 오층석탑	광주 동구 (○○○)	<input type="checkbox"/> 도로개설공사(지산IC~조선대) ○ 위치 : 동구 지산동 170-1번지 일원 - 제6구역(보호구역에서 440m 이격) -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 사업내용 : 도로개설공사(지산IC~조선대) - 전체사업규모 (L=545.1m, B=10m/왕복2차로, 보도2.3m) - 현상변경 구간 (L=325m, B=10m)	원안가결	'21.09.06
보물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	경기 화성 (○○○)	<input type="checkbox"/> 동식물관련시설(작물재배사) 설치 ○ 위치 : 화성시 송산동 183-2, 185번지 - 제6구역(보호구역에서 222m 이격) -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 ○ 사업내용 : 작물재배사 설치(콩나물) - 대지면적 : 4,235㎡ - 건축면적 : 827㎡ - 연 면 적 : 827㎡ (2동/지상1층) - 동별현황 · A동 지상1층 작물재배사 450㎡ · B동 지상1층 작물재배사 377㎡ - 구 조 : 일반철골구조 - 최고높이 : 6.9m	원안가결	'21.09.06
국보 구례 연곡사 동 승탑	전남 구례 (○○○)	<input type="checkbox"/> 동암 요사채 개축 및 주변정비 ○ 위치 : 구례군 토지면 피아골로 806-16 - 제1구역(문화재에서 80m 이격) ○ 사업내용 : 요사채 개축 및 주변정비 - 소요예산 : 500백만원(도비지원사업) - 요사채 개축 : 85.2㎡ (높이 6.85m) (정면4칸,측면2칸, 익공, 굴도리 5량가) * 기존 요사채 112.48㎡, 경량철골조 - 주변정비 · 배수로석축정비 (H=1.5m, W=0.45*0.6m, L=25m) · 기존석축 보수, 흙다짐, 집수정 설치, 이중벽관설치 등	원안가결	'21.09.06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p style="text-align: center;">보물 제주향교 대성전</p>	<p style="text-align: center;">제주 제주 (○○○)</p>	<p>□ 단독주택 신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제주시 용담일동 31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구역(보호구역에서 74.1m 이격) - 평지붕 8m이하, 경사지붕 12m이하 ○ 사업내용 : 단독주택 신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 : 145㎡ - 건축면적 : 74.43㎡ - 연 면 적 : 132.62㎡ (지상3층) - 층별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상1층 단독주택 50.09㎡ · 지상2층 단독주택 72.27㎡ · 지상3층 단독주택 10.26㎡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 최고높이 : 9.5m <p>* 기존단독주택 철거 후 신축</p>	<p style="text-align: center;">원안가결</p>	<p style="text-align: center;">‘21.09.06</p>
<p style="text-align: center;">보물 칠곡 송림사 오층전탑</p>	<p style="text-align: center;">경북 칠곡 (○○○)</p>	<p>□ 농막 설치(2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칠곡군 동면면 구덕리 9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131m 이격) - 개별심의 * '21년 8월 1차 자체회의 결과 : 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문화경관 저해 ○ 내용 : 컨테이너 농막 1동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 : 1,055㎡(변경없음) - 농막면적 : 18㎡(3*6)/높이 3m(변경없음) - 재질 : 조립식패널→컨테이너 - 컨테이너 주변 뽕나무 차폐식재 	<p style="text-align: center;">조건부가결 (허가일로 부터 3년 경과 시, 문화재 보호법 관련 재허가를 득할 것)</p>	<p style="text-align: center;">‘21.08.23</p>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p style="text-align: center;">보물 청도 석빙고</p>	<p style="text-align: center;">경북 청도 (○○○)</p>	<p>□ 서상마을쉼터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청도군 화양읍 서상리 464-3번지 외 1필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구역(문화재에서 644m 이격) - 평지붕 8m, 경사지붕 11m * 시도기념물 청도읍성 통합 고시 구역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계획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중화장실신축 (A=45.36㎡) 2) 관리사무소신축 (A=31.59㎡) - 식재계획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목류 : 소나무 12주 외 76주 2) 관목류 : 회양목 140주 외 780주 3) 지피초화 및 잔디식재 - 시설물계획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게이트블장 : 2개소, 17m×22m×8.06(H) 2) 파고라 : 1개소, 4m×4m×3.278(H) 3) 장비창고 : 1개소, 3m×3m×2.6(H) 4) 장대석쌓기 : 1개소, H=0.53m, L=38.95m 5) 장식가벽쌓기 : 1개소, H=0.6m, L=10m 6) 조경석쌓기 : 1개소, H=0.45m, L=31m - 포장계획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차장 아스콘포장 : A=330㎡ 2) 화강석블록포장 : A=382㎡ 	<p style="text-align: center;">조건부가결 (도문화재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처리)</p>	<p style="text-align: center;">‘21.08.23</p>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p style="text-align: center;">보물 대구 동화사 대웅전</p>	<p style="text-align: center;">대구 동구 (○○○)</p>	<p>□ 부도군 보존처리 및 주변정비</p> <p>○ 위치 : 동구 동학동 산124-1</p> <p>- 제1구역(문화재구역에서 220m 이격)</p> <p>- 개별심의</p> <p>○ 사업내용</p> <table border="1" data-bbox="547 562 1118 1173"> <thead> <tr> <th>구분</th> <th>기준</th> <th>금차</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석축</td> <td>18개소 L=240.25m, H=0.3~1.5m</td> <td>19개소 L=268.75m, H=0.3~1.6m</td> <td>H~I구간 화강석 석축</td> </tr> <tr> <td>계단</td> <td>2개소 L=5.2m, H=1.3m</td> <td>1개소 L=5.2m, H=1.3m</td> <td>-</td> </tr> <tr> <td>벌목</td> <td>17주 (B=10~100cm, H=2.5~35m)</td> <td>좌동</td> <td>-</td> </tr> <tr> <td>석조물 공사</td> <td>-</td> <td>부도 6기설치 1.75m*1.75m, H=2.76m 행화비 건립 1기 5m*1.8m*4m</td> <td>-</td> </tr> <tr> <td>보존 처리</td> <td>부도 10기 보존처리</td> <td>좌동</td> <td>대구시 허가사항</td> </tr> </tbody> </table> <p>※ '19년 7월 제1차 자체회의 결과 : 조건부 가결</p> <p>- 부도 및 행화비 관련 내용 보완</p> <p>○ 허가 내용</p> <p>- 부도(5기) : 1.75m*1.75m, H=2.76m</p> <p>- 행화비 : 5m*1.8m, H=4.0m</p> <p>- 석축설치 : L=190.9m, H=0.30~1.50m</p> <p>- 벌목 : 20주(B=20~100cm, H=6~30m)</p> <p>※ '19년 9월 제2차 자체회의 결과 : 조건부 가결</p> <p>- 수정 제출된 도면대로 시행(부도 10기 보존 처리는 시에서 처리)</p> <p>○ 허가 내용</p> <p>- 부도 보존처리 10기(시 허가사항)</p> <p>- 석축 설치(8개소) : L=212.3m, H=0.30~1.50m</p> <p>- 계단 설치(2개소) : L=5.2m, H=1.3m</p> <p>- 벌목 : 18주(B=10~100cm, H=2.5~35m)</p> <p>- 부도 1기설치</p> <p>- 야자매트 : L=480m</p> <p>※ '19년 10월 제3차 자체회의 결과: 원안가결</p> <p>○ 허가내용 : 석축 설치</p> <p>- 석축설치(12개소) : L=125m, H=0.30~1.50m</p> <p>※ '20년 3월 제2차 자체회의 결과 : 조건부가결</p> <p>- G열 석축 최고 높이를 1.5m 이하로 할 것</p> <p>- 화강석 석축의 다듬기 정도는 거친돌다듬기로 할 것</p>	구분	기준	금차	비고	석축	18개소 L=240.25m, H=0.3~1.5m	19개소 L=268.75m, H=0.3~1.6m	H~I구간 화강석 석축	계단	2개소 L=5.2m, H=1.3m	1개소 L=5.2m, H=1.3m	-	벌목	17주 (B=10~100cm, H=2.5~35m)	좌동	-	석조물 공사	-	부도 6기설치 1.75m*1.75m, H=2.76m 행화비 건립 1기 5m*1.8m*4m	-	보존 처리	부도 10기 보존처리	좌동	대구시 허가사항	<p style="text-align: center;">조건부가결 (대구시 문화재 위원회 결과에 따라 처리)</p>	<p style="text-align: center;">'21.09.06</p>
		구분	기준	금차	비고																							
석축	18개소 L=240.25m, H=0.3~1.5m	19개소 L=268.75m, H=0.3~1.6m	H~I구간 화강석 석축																									
계단	2개소 L=5.2m, H=1.3m	1개소 L=5.2m, H=1.3m	-																									
벌목	17주 (B=10~100cm, H=2.5~35m)	좌동	-																									
석조물 공사	-	부도 6기설치 1.75m*1.75m, H=2.76m 행화비 건립 1기 5m*1.8m*4m	-																									
보존 처리	부도 10기 보존처리	좌동	대구시 허가사항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p style="text-align: center;">보물 칠곡 기성리 삼층석탑</p>	<p style="text-align: center;">경북 칠곡 (○○○)</p>	<p>□ 근린생활시설 건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칠곡군 동명면 기성리 1003-1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95m 이격) - 개별심의 * '21년 8월 1차 자체회의 결과 : 보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조사 후 재심의 ○ 내용 : 근린생활시설 1동 건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모 : 건물1동, 지상2층 - 건축면적 : 138.60㎡ - 연면적 : 198.96㎡ - 구조 : 일반철골조 - 최고높이 : 8.5m - 외부마감 : T125형판넬+징크강판, T125형판넬+고벽돌마감 - 지붕 : 경사지붕/징크지붕판넬 <p>※ 1구역 내 근린생활시설 허가 현황</p>	<p>부결 (역사문화 경관 저해)</p>	<p>'21.08.23</p>		
		통지일자			2017.11.28.	2018.8.20.
		통지내용			허가	조건부허가 (문화재로부터 직접 조망되지 않도록 차폐식재 시행(대나무 등))
		사업위치			기성리 1031-2	기성리 산 12번지 2호
		이격거리			80m	180m
		용도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건축면적 (연면적)			단독주택:67.65㎡/ 근생:131.14㎡	417.72㎡ (870.44㎡)
		구조			경량철골조	철근콘크리트
		층수			지상1층	지하1층, 지상1층
		높이			5.6m	10.35m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국보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 삼존상	충남 서산 (○○○)	<input type="checkbox"/> 개인 작품활동 ○ 위치 :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2-10번지 - 보호구역 내 ○ 내용 : 캔버스 1점 설치 - 규모 : 270cm×200cm, 1점 - 설치방법 : 대형 캔버스에 목재 지지대를 세우고, 삼존상 좌측 담장과 기둥 사이 공간에 캔버스를 고정 설치함. ※ 작업 기간 중 상시 설치, 작업완료 후 철거 - 안전관리 : 바닥에 비닐을 깔아 물감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함.	부결 (역사문화 환경 저해)	'21.08.23
국보 태안 동문리 마애삼존불 입상	충남 태안 (○○○)	<input type="checkbox"/> 개인 작품활동 ○ 위치 :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산 5번지 - 보호구역 내 ○ 내용 : 캔버스 1점 설치 - 규모 : 300cm×210cm, 1점 - 설치방법 : 대형 캔버스를 보호각 기둥에 묶어 고정 ※ 작업 기간 중 상시 설치, 작업완료 후 철거 - 안전관리 : 바닥에 천갈판을 깔아 물감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함.	부결 (역사문화 환경 저해)	'21.08.23
국보 천안 봉선홍경사 갈기비	충남 천안 (○○○)	<input type="checkbox"/> 농막 설치 ○ 위치 :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대흥리 310번지 4호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166m 이격) - 개별심의 ○ 내용 : 컨테이너 농막 1동 설치 - 2.8m*7m / 높이 4.5m	부결 (역사문화 환경 저해)	'21.08.23

다.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원안접수 9명